

EPIC을 적용한 교회의 재정향 전도프로젝트

: 미래로교회 EPIC전도축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유태경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Taekyoung You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orientation of the Church with EPIC for Evangelism Project

: EPIC Open House Sunday of Miraero Church

Taekyoung You

Miraero Church, Kyounggi, Korea

The church has existed in various forms throughout history. In some eras, despite the persecution and criticism of the world, the church managed to overcome it with faith. On the contrary, when Christianity gained great political power, it suffered from corruption and lies within the group.

What does the church look like today? Does it look like it is enduring troubled times, waiting for that the glorious day of victory? Or does it seem like it is simply boasting a great number of members and a huge building, but underneath the facade it is about to crumble? What shape does God want the church to be in? I think the church must recover the early church's faith and sincerity.

This study is an effort to help the church find healing and revival through faith in God from various dilemmas that it is suffering from. I have studied a 20-year old church that has struggled with many problems over the years and have failed to deal with them using EPIC, a recovery strategy to help repair the health of the church. I hope that this study assists pastors and churches with the same concerns.

국문초록

EPIC을 적용한 교회의 재정향 전도프로젝트

: 미래로교회 EPIC전도축제 연구

유태경

미래로교회, 경기도, 대한민국

교회는 역사에서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신비한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었을 때는 위축되어 사라질 것 같았으나 어느새 세상의 논리와 주장을 뒤집고 그 고유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교회가 강하고 흥하여 세상을 호령할 때는 언제 뒤따라올지 모르는 부패와 세속화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났다 하는 모양새이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계 속에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인가? 곤고한 시대를 인동초와 같이 꽃피울 봄을 기다리며 영적 흑한기를 버터내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부흥일로의 성공을 이뤄내는 교회이든지 이 교회를 향해 가진 숙명처럼 품고 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본질로 재정향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고, 교회의 숨결이신 성령님의 탄식일 것이다.

교회의 재정향은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말하는데, 초대교회의 그것은 고결하고 귀하지만 현대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한다.

본 연구는 세상 풍파에 쓰러져 상처투성이가 된 교회에 생명호흡을 공급할 영적 CPR을 작동하여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회복시키고, 이 기운을 차린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그 본질을 재정향하여 세상에 다시금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도록 EPIC적 요소로 옷 입은 교회로서 복음전도에 힘을 다하여
박차를 가하는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복음은 단순 명료하나 교회는 EPIC이라는
다양한 질감의 옷을 입고 선교 재발견 교회의 사명을 이뤄가야 한다. 본 연구자는
20년의 굴곡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상처와 침체의 상황에 놓여있던 한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재정향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매력을 어떻게 발산하기
시작했는지를 밝혔다. 교회의 현장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목회자들과 EPIC 교회를
세워 가는데 연대를 이루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교회의 재정향과 EPIC 교회론	7
교회의 재정향(ReOrientation)의 정의	7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9
EPIC 이론에서 추출한 EPIC 교회론	15
체험(Experience)하는 교회	18
참여(Participation)하는 교회	22
이미지(Images)를 보여주는 교회	25
관계(Connection)를 맺는 교회	28
III. 교회의 재정향 목회전략	31
목회전략으로서 영적 CPR	31
EPCR을 적용한 영적 CPR 프로그램 개발	34
Congregation(모임) 프로그램	34
Prayer(기도) 프로그램	39
Reading the Bible(성경읽기) 프로그램	41

IV. 영적 CPR 프로그램의 실행: 미래로교회	43
미래로교회의 상황	43
교회 재정향을 위한 ‘영적 CPR’ 의 실행	45
Congregation(모임) 프로그램 실행	45
세대융합 모임: 아멘(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	52
Prayer(기도) 프로그램 실행	62
Reading the Bible(성경읽기) 프로그램 실행	68
영적 CPR 프로그램의 적용: EPIC 전도축제	75
미래로교회 교인들의 평가	88
V. 결론	98
연구의 요약	97
연구의 결론	105
참고문헌	110

표 목차

<표1> 기능을 강조한 모임들의 사례	36
<표2> 네 요소가 균형 잡힌 모임	37
<표3> 아멘 프로젝트의 4P	53
<표4> 중보기도학교 시간표	64
<표5> EPIC 전도축제 전8-5주차 준비사항	76
<표6> EPIC 전도축제 1주차 목요모임	78
<표7> EPIC 전도축제 2주차 목요모임	81
<표8> EPIC 전도축제 3주차 목요모임	84
<표9> EPIC 전도축제 4주차 목요모임	89

그림 목차

<그림1> ‘VISION2040 WORKSHOP’ 의 모습	47
<그림2> 갈렙산악회와 성지순례팀의 제암리 교회 방문	49
<그림3> 청바지DAY ‘청춘축제’	52
<그림4> 아멘 프로젝트 포스터(현수막)	54
<그림5> 아멘 프로젝트 연결표	55
<그림6> 사랑의 도시락 조리 팀과 도시락	60
<그림7> 사랑의 도시락 조리 팀과 도시락 전달	60
<그림8> 목장 축제 (바나바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는 연구자	62
<그림9> 주일예배를 위한 토요일저녁기도회	66
<그림10> 2021년 2월 중보기도제목	67
<그림11>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델이 된 현수막(포스터)	68
<그림12> 가정 예배 순서지	70
<그림13> 백일 동안 성경일독 Planner	72
<그림14> 100/100 성경필사 담당자표	73
<그림15> 완성된 100/100 성경필사본	74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식의 경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다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두려운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여유 자적 배움에 게을렀을 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 부족한 사람에게 섬광처럼 보여주신 그 기억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견인하였으니 지나온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손가락처럼 자꾸 신경이 쓰이는 자식 위해 반백 년 동안 젖도 눈물도 피땀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어머님께 박사모와 박사가운을 입혀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는 눈망울로 “어서 가거라. 어렵게 결정한 일인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 마지막 기억에 남을 말을 주시고 저희 떠나신 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붙잡으셨어도 결코 미련이나 후회는 없었을 텐데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고 동행해 준 아내 희진에게 고맙고, 하늘에서 주신 기업이라 이름 두 글자도 함부로 지어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아들 대승이와 무열이도 고맙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조병호, 김영래, 래너드 스윗 교수님,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공부가 체질이라며 끝까지 공부하도록 격려해준 사랑하는 동생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신 미래로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불편할 텐데 참고 애쓰는 목회 현장의 동역자들도 감사합니다.

아끼던 쌈짓돈 모아서 공부하는데 보태 쓰라며 제 주머니에 쑤셔 넣어 주셨던 다 밝힐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유태경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동기와 목적

목회자로 부름 받은 후 아니 훨씬 이전부터 목회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꿈꾸며 목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마치 그림자처럼 본 연구자를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목회현장에서 경험했던 일이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하던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좋지 않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건넨 기억이 있다.

평생 꿈꾸며 소망하는 참 좋은 교회를 떠올릴 때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된 후 교회 공간이 풍성하면서도 그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교회를 떠올리기도 했다. 한 때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권위적인 태도로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했었다. 목회지망생일 때 신앙의 큰 영감을 준 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돕던 목사를 통해서도 그래도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한국교회 안팎에서 신선한 목회자상으로 존경 받는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당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질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본질을 잡는 것으로 목회전략을 세웠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이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천 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좀 더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진력한 때일수록 교회가 실은 가장 부패했던 때임을 감안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한 이유이다.¹

이재철 목사의 이렇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 것은 붙잡는 목회전략은 좋은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진 본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목회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뜨겁게 관계를 세워가면서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무리들로서의 교회를 인간의 조직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유기적 성격을 가진 조직체로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고민과 질문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는 바에야 교회를 성서의 가르침보다는 조직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당하고 사람들의 의지에 좌우되었음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 교회의 조현삼 목사는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데 가치는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교회’로 알려지기 바란다고 했다. 자기가 떠난 뒤에 건물이 아닌 사람이 남는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조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자며 자신의 목회철학을 설득한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¹ 이재철, *회복의 목회* (서울: 홍성사, 1999), 18.

교회’² 등으로 광염교회의 설립 비전을 정했다고 한다.

이제 목회를 시작한 시점에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이 가득한 본 연구자에게 교회 회복이란 교회 본질로의 돌아감을 깨닫고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초대교회로의 돌이킴이다. 그러나 현대라는 시대와 어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옷으로 입어야 하는 두 가지 방향을 견지하려는 것이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고 결론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면서 한국교회 공동체 운동을 연구한 문석호는 “교회가 사회의 얼굴은 되지 못해도 교회를 사회를 향한 사명이 있음을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의 교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외침은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³고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가타운에 위치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침체와 패배감으로 눌러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이제야 갓 1년을 넘겼다. 이제 다시 질문한다. “좋은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 일변도의 교회성장론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이

² 양병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7), 17-18.

³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14.

다. 아울러 이런 인식은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요구하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하므로 점점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교회가 개인 구원을 내세우며 성장에 열을 올릴 때 한 쪽에서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각고의 연구 끝에 쏟아져 나오는 외침들은 결국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과거의 교회에서 교회의 미래를 보자는 것이다. 본래 교회의 모습인 성경의 초대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성으로 박해를 견디며 세상을 복음의 능력과 공동체성이 가진 가시적이지 않는 힘으로 설득하여 결국에는 복음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점을 현대의 교회는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교회의 재정향의 목표를 정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졌던 복음전도의 열정이 어떻게 공동체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교회의 재정향이라 하여 이천 년 전의 교회를 옮겨다 놓을 수 없다. 과거의 것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통되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일 것이다. 21세기에 걸맞게 세련된 옷을 입고,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향수를 뿌리고, 첫 눈에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선보여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던 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대안적 교회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미래학자이며 영성신학자인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에서 EPIC 교회론을 추출해 낼 것이다. 이는 초대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다는 본 연구자의 신학적 가치와 목회의 지향점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목회의 전략을 구상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에 희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연구자의 목회현실은 그야말

로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회생해야 한다. 회생해야 멋도 내고 향기도 품어내며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김영래가 주장하는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적 CPR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영적 CPR이 교회현장에서 어떻게 목회전략에 차용되는지도 연구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영적 CPR를 통해 침체된 교회를 회생시키고, 회생한 교회공동체가 기운을 차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 잘 먹고, 공동체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굳어있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의 재정향을 이루려 세상을 향해 매력적인 EPIC교회로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프로젝트를 가동해 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래서 I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한 동기와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추구하는 목적인 바를 위해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의 방법론을 밝혔다. 그리고 II장에서는 교회의 재정향이 신학적, 교회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교회 재정향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EPIC이론에서 교회론을 포착하였고, 그걸 통해 EPIC 교회를 디자인하였다. III에서는 교회의 재정향을 위해 침체된 현장의 목회에 생명을 불어넣을 목회전략으로서 영적 CPR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혔다. 또한 이 목회전략으로 프로그램화한 영적 CPR의 내용들을 열거하여 목회 현장과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목회현장에서 영적 CPR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 영적 CPR을 적용하여 재부팅 된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전도에 어떻게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지 EPIC전도축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 과정을 교회현장에서 본 연구자와 함께 몸소 경험한 성도들의 평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가 복음전도라는 지상명령과 비대면 시대의 현실적 상황에서 다소 멈칫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교회의 재정향을 통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품은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 II 장

교회의 재정향과 EPIC 교회론

교회의 재정향(ReOrientation)의 정의

2008년 대한민국의 대표 신학자 100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의 재정향을 이루자” 며 외쳤다. 100명 신학자들의 대표를 맡은 조병호는 “폐쇄적인 열광주의, 배금주의, 교회의 사유화 등이 교회가 치열하게 고민할 분야라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에 재정향(Reorien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근원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성경적 기독교’ 를 만날 수 있다.”⁴고 했다. 김영래는 이에 앞선 2007년 미국 일리노이스주 휘튼 칼리지에서 열린 신학 회의의 주제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고대신앙(The Ancient Faith for the Church’s Future)’ 이었다” 고 소개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진 풍부한 성경적, 영적, 신학적 보고(寶庫)들이 재발견하는 교회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

김교민은 코로나19상황을 대처하는 교회의 상황을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공적책임을 꾸준히 감당해 왔다. 인류의 보편 가치와 국가의 독립

⁴ 백성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05.01.

⁵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2) 과거에서 찾는 교회의 미래,” *국민일보*, 2012.09.10.

운동을 주도했으며 해방이후에는 평화 및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⁶라고 분석하면서 선교 130년을 지내온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은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재정향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래에 의하면 ‘포스트기독교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재정향이라면서 종교개혁 때와 같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레너드 스윗의 말을 인용했다.⁷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 재정향으로 지목하는 것은 본래의 교회인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의 회복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고, 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입을 모았다.

조병호는 강의를 통해 성경을 심정적인 방식으로 ‘노아의 방주’를 읽으면 심판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진다고 했다. 교회의 재정향을 생각하면서 첫걸음은 내딛을 때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즉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통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재정향의 방향성이라고 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흥(The Rise of Christianity)’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부터 약 350년간 보여준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불과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회가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써 300년 동안 매년 40%의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수가 3,300만 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한다. 결국 로마제국의 변

⁶ 김교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선교적 성찰,” *장신논단 Vol. 52*(2020), 196-200.

⁷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2) 과거에서 찾는 교회의 미래,” *국민일보*, 2012.09.10.

방에 있던 유대인들의 한 분파가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⁸

본 연구자에게 교회의 재정향을 일깨운 김영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의 간단없는 외침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고 본질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바른 태도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를 통해 미래의 길을 찾으려는 것은 역사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멈춰진 컴퓨터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 회복차원에서 교회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회복(ReChurch)을 위해서는 예수 회복(ReJesus), 성경 회복(ReBible), 기도 회복(RePrayer), 증언 회복(ReWitness)을 시도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을 다시 기억해 내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⁹

본 연구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큰 주제인 교회 회복(ReChurch)을 위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언 회복(ReWitness)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를 개진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교회 재정향을 위해 2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범적인 교회를 원형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 또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형태인 구한말에 선교사들과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의 요람이었던 장대현 교회를 재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⁸ Rodney Stark.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21-22.

⁹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222-32.

예수가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셨던 그 위임을 기억에 상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빛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120여 년 전 이 땅에서 타올랐던 성령의 불꽃을 환기하면서 교회의 온전한 재부팅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환한 교회의 재정향의 세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공통분모는 선교적 교회 뿐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연구자의 이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삼기 보다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 성경 기초 위에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모델을 기존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GOCN 중심의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

1900년대 말부터 서구 기독교가 고조된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러 대안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재 성장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하려는 북미의 선교적 운동을 주도한 것은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다. 이 GOCN을 주도한 로이스 바레스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교적 교회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낼 수 없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고 상처입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이 필요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로 참여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하는 곳이며 구체화하는 곳이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이루고 개인적인 관계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현존과 능력에 증거가 되기 위한 훈련된 공동체이다.¹⁰

이는 GOCN의 노력이 선교에 있어 교회 중심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는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교회를 선교의 주체가 아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다텔 구더(Guder)는 선교적 교회가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역할이 있음을 밝혔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회와 문화 안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다. 선교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는 선물이다. 선교는 보냄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회가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그의 본질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¹¹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기독교 제국(Christendom)의 방식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교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며 교회의 리더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승현은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하는 과정을 사례 연구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반 겔더가 애리조나 주의 지역 교회

¹⁰ 조해룡,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상* (서울: 도서출판 소망, 2013), 115.

¹¹ Ibid., 113.

목사인 릭 로우스와 공동으로 저술한 사례를 재인용한 내용에서 전통 교회에 요구되는 6가지 변화 사항이 흥미롭다.

- ① 교회 자체의 유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 ② 교인의 수보다는 제자훈련에,
- ③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의 삶 중심으로,
- ④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으로,
- ⑤ 교회의 초점이 각 교회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 ⑥ 교회를 고착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변화를 위해 일곱 가지 핵심요소들이 있다.

- 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
- ②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 ③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 ④ 선교적 리더 팀 조성,
- ⑤ 갈등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선교에 집중,
- ⑥ 교회 재정에서의 청지기 사명 감당,
- ⑦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 과정에서의 격려이다.¹³

이런 연구를 보면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시도가 미완으로 진행 중이며 북미를 떠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서도 적용될 때 신학적인 마찰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종교적인 이유로 원활하지 않을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다행히 한국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의 재정향을 위

¹²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GOCN의 연구를 중심으로', 1910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6(서울: 미션 아카데미, 2011), 59.

¹³ Ibid., 60.

해 선교적 교회에서 답을 구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있어 소망이 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가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본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가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기능 중 하나로 보는 상황에서는 본질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더가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선교가 있는 교회(Church with mission)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바뀌는 것이다.”¹⁴라고 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그 소명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 본질에 맞게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경공부, 봉사 및 활동의 조직 등 교회 안팎이 다르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내적 영역은 항상 외적 영역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매 주일 드러지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구더는 “무엇보다도 선교 공동체의 공적 예배는 언제나 보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부름 받은 공동체는 동시에 보냄 받은 공동체다. 매번 드리는 공적 예배는 파송의 의식이다.”¹⁵ 라고 했다.

또한 구더는 교회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항상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서구 기독교가 교단마다 가진 오랜 전통을 유지하려는 방편이 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장 널리 알려진 선교를 위한 조직의 예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의 체계가 반드시

¹⁴ Darrell Guder, *선교적 교회*,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329.

¹⁵ *Ibid.*, 351.

마주쳐야 할 도전은 그것이 처한 문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가 신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가 이다”¹⁶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교적 말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성경공부가 저절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교회는 여유롭게 지적 욕구를 채우는 식으로 성경공부를 운영해서도 안 된다. 성경공부는 분명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성경공부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삶이 훈련되고, 지속해서 양육 받고 훈련되어 선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로의 인식 전환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장소가 아닌 사람이라는 개념의 확신이다. 오래도록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이 뿌리내려 있었다. 교회가 장소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선교적 유연성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선교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변했다. 이런 교회가 장소가 아닌 사람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모이는 존재로서의 교회 궁극적으로는 다시 사명을 받아 흠어지는 존재로서의 교회로 인식하게 한다. 바로 벤엔겐이 말하고 있는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인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기도 하다.¹⁷

선교적 교회론을 청년 목회에 적용을 시도한 김창식은 뉴비긴의 ‘교회 없는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처럼 기형아일 뿐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교회의 역할을 주장했다.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의 강조는 교회의 본질적인 인식을 새롭게 한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인간 조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로 인식해야 한다.

¹⁶ Ibid., 329.

¹⁷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154.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은사이면서 동시에 일이고 영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교회는 형성된 공동체이며 살아있는 성례전이며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표지판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현실에 맞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자기반성을 하며 본연의 모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조직체로 아직도 죄 된 모습을 가진 현실적인 교회와 거룩하며 신적인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이상적 교회의 간극이 좁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있으며 동시에 둘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¹⁸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단순히 교단이나 기구를 새로 만드는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이다. 선교가 교회의 변방에 놓여서는 안 되며,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했던 인식의 반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성장이 점차 둔화되다가 더 나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로 교회 재정향은 다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배, 봉사, 조직, 성경공부 등 모두 선교적 본질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EPIC 이론에서 추출한 EPIC 교회론¹⁹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스타벅스가 내놓는 ‘그란데 커피잔’이 카페인 성분이 가득한 자바음료의 향과 액체를 담아내는 판매용 상품 정도가 아닌 브랜드의 문화 포털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스윗이 스타벅

¹⁸ 김창식, *선교적 교회의 청년 목회* (서울: Kumran출판사, 2015), 57-58.

¹⁹ 이 부분은 레너드 스윗의 『교회, 스타벅스를 가다』에서 교회론으로 적용할 부분을 요약한 것임을 밝힘.

스 커피잔을 들고 음미하면서 그란데 복음, 프라푸치노 신앙,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벤티 사이즈 인생이라는 아주 풍성한 향과 매력을 가진 ‘열정의 EPIC 인생’ 론을 추출해 내듯이 필자는 스윗이 도구로 삼은 사고와 상상의 기술을 빌려 그의 EPIC 이론에서 ‘EPIC 교회론’을 추출하여 이 질문에 담아 교회를 회복시키는 영성 포털로 사용하는 일을 시도했다.

1971년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스타벅스가 2006년에는 북미지역에서만 1만 여개의 점포를 운영했고, ‘거리파괴(distance is dead)’의 모토가 현실이 되었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길 건너에 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정도로 이제는 세계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²⁰ 스타벅스가 이렇게 획기적인 성장을 이룬 이유는 기존의 커피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고유의 커피 맛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향을 맡는 등의 아주 매력적인 경험들을 제공하여 단순한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파워를 가졌기 때문이다.

스윗이 EPIC 이론에서 제공하는 교회론은 기존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했던 형식의 뻔한 맛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공받았던 교회론은 성서를 해체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소개한 구절들을 골라내고, 분석한 것이다. 그 맛이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맛으로 느껴지는 것은 본 연구자만의 느낌일까?²¹ 또 그

²⁰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별다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1999년 서울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생겼으며, 2020년 전국에 1300여개의 점포 수를 넘겼으며, 매출이 1조 8천억에 이른 대기업 부럽지 않은 결과를 냈다. 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Amp.

²¹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헌법의 교리 부분에 소개된 교회론은 ‘1.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보편성과 우주성 2. 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중심 하여 모인 택함 받은 무리들로 구성함. 3. 그리스도가 성직과 예언의 의식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4.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수십 가지의 성경 구절로 이 논리를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각 지역 교회에서 목회의 현장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식의 양념을 추가해서 재조직한 교회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교회를 교리의 부분으로 해체하고 분석한 교회론은 마치 생명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박물관에 박제 전시되어 있는 공룡 화석과 같은 느낌을 준다. 공룡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감동 딱 그 정도만큼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기존의 냉랭한 방식으로는 오늘날 급격히 식어가는 교회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꺼져가는 생명에 힘을 공급할 수 없다. 스윗이 스타벅스 식의 교회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것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나 피상성을 찾기 위해 애 쓰지는 않는다는 것. 굳이 애쓰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거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진정한 경험의 매력을 그 어떤 기업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일련의 신념이나 생활방식이 아니라 호흡이요 맥박이요 생명이다. 스타벅스는 종교기관이 아니지만 상품과 추구의 차이를 확실히 아는 것이 틀림없다. 커피 한 잔은 상품에 불과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것은 추구다. 스타벅스는 그 차이를 알았다.²²

스윗이 스타벅스에서 원리를 추출하여 교회론을 주장하는 이렇듯 선명하다. 마치 ‘최고의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닌 커피를 최고로 경험하려면 스타벅스로 오라’²³고 외치듯이 일종의 신념이나 새로운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닌 진정한 생명을 위해 복음을 통해 열정이 넘치게 사는 법을 교회가 제공한다고 외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스윗이 스타벅스에서 추출한 교회론을 ‘EPIC

²²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37.

²³ *Ibid.*, 39.

교회론' 이라고 명할 수 있겠다. 이는 체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차례로 교회론으로 해석해 보겠다.

체험(Experience)하는 교회

EPIC교회의 첫째 요소는 체험(Experience)이다. 들어서 아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보다 겪어서 아는 체험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린다. 신앙생활이란 관념적 언어로 설명하는 하나님이라 아니라 일상에서 실재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가장 역동성을 갖는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진 부모를 통해 출생하여 평생 교회를 출입하며 성경을 배우고 교회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의 내용을 채웠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의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짚트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성서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통찰을 찾아내서 성서가 품고 있는 역사적 기술과 문학적 기교에 감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의 생명과 위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팀 켈러는 복음의 인격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바로 복음이다. 다른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한다. 타 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한다. 타종교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답’ 이다.²⁴

현대인들은 다양하고 굽직한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한다. 이렇게 현대의 구도자들이 문제의 답을 찾아 나설 때 학교와 유명한 서적에서 얻은 답에 만족하지 못하면 절망한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성경에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나므로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진정한 체험과 함께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진정한 기독교 체험이란 일주일 단위로 규칙적인 종교적 활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세상은 그런 종교인들에게 감흥도 하지 않고 고상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실재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인생의 굽직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 본인 뿐 아니라 세상에 획기적인 복음의 표현이 될 것이다.²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자이며 교회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 스타벅스와 같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만나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 역사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반면 신약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좀 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주하듯이 대화를 나누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야기 나누셨다. 신약시대에도 물론 역사의 주관자이지만 사람들을 좀 더 섬세하게 만나 주시는 것을 강조하신 듯하다. 이런 만남을 통해 사람들은 놀

²⁴ Timothy Keller, *인생질문*,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9), 39.

²⁵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73.

라운 변화를 체험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또한 개인의 삶도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공유하게 된다.

한국에 성서적이고 현대적인 도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2001년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기는 김형국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직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새벽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퇴근길에 헬스클럽에서 운동은 하면서도 영혼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 하루에 30분도 내기 힘들지 않는가?”²⁶라고 질문하면서 교회에서의 체험하는 일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밝힌바 있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 알고 배우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스윗은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기를 원하신다. 사과 씨가 자라 사과나무가 되고, 레몬 씨가 자라 레몬 나무가 되듯이, 인류 속에 심긴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²⁷라며 교회가 신앙의 체험적인 측면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는 체험이라는 요소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스윗은 다른 저서에서 “세계의 경제가 산업 경

²⁶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경기: 비아토르, 2017), 36.

²⁷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73-74.

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동했으며 이것이 다시 경험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²⁸고 말한다. 과거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설명이나 인식을 신뢰해왔던 경향이 이제는 직접 경험을 맛보므로 개인마다의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키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교회가 냉랭한 교리적 신념이나 신앙고백 말고, 구체화된 실천과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제공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윗은 “스타벅스가 세계 시장 정복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10초의 법칙이란 게 있었다. 바리스타는 기계에서 고객의 입술까지 10초 안에 전달되지 못한 커피는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만들었다. 뜨거운 그란데의 열정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살펴본 대부분의 교회 문서들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식상했다. 하나님은 구태의연하고 식상한 것을 역겨워 하신다.”²⁹라고 작금의 교회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세익스피어가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찾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영정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듯이,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을 만드는 일에 뜨겁게 흥분되어 있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잠을 자거나 마비되었거나 죽어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교회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신비한 경험을 위해 사람들의 요구를 변화하고 운동성

²⁸ Leonard Sweet, *Soul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MI: Zondervan, Kindle Edition, 2009), 187.

²⁹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86.

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구토를 유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참여(Participation)하는 교회

EPIC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 참여(Participation)이다. 체험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공동체나 개인은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화로는 형질이 차갑고 까만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졌다. 그 속에 장작을 넣고 불이 붙는 체험을 통해 형질의 변화를 이룬다. 차가운 철판이 불이 붙은 장작으로 인해 뜨거워진다. 까맣게 녹이 쓴 형질이 붉게 변색한다. 속에서 장작이 타는 동안에는 이런 변화의 상태는 지속된다. 지속된 변화는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데, 변화 이전의 상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상태를 전도하게 된다. 속에서 변화를 이끌었던 불의 성질을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뜨거운 열을 확장시키고, 접촉하는 것을 불태운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원리다.

눈으로 커피의 그 빛깔을 즐기고, 컵에 담긴 커피의 향에 미소를 보내기 위해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그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를 몸소 즐기기 위해 찾는다. 어떤 체험의 현장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참여할 때에 비로소 참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윗은 “영성도 마찬가지로. 기도나 예배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이나 도전을 받을 수는 있다. 책의 내용에 감화를 받은 나머지 특정한 영성 훈련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결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 한, 이런 주제를 다룬 책들은 마른 잉크에 지나지 않는다. 독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아무 쓸데없는 생명 없는 언

어에 불과하다.³⁰” 고 했다.

레드햇의 CEO 짐 화이트 허스트는 어느 강연에서 참여가 혁신을 위한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참여는 새로운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고, 증기 기관이나 CPU를 만드는 것과 같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은 참여와 개방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여러 조직과 분야에 걸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함께 일할 자유를 줄 때, 혁신을 위한 능력은 개개인의 전체보다 훨씬 더 향상된다.³¹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 한복판에서 ‘직접 참여’ 이슈가 정치 면에서는 의회를 통한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광장에 나가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웹을 기반으로 한 모든 활동(유튜브, UCC, 블로그, 동호회 등)이든지 과거에는 소비자와 청중으로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의 변화의 줄기에는 대표제에서 참여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수의 경험을 수동적으로 구경시켜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참여하게 하여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세대에게 ‘참여’의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참여’의 과정을 공개하는 용기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수의 성육신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참여의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성육신은 하나

³⁰ Ibid., 90.

³¹ 박재관,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목회학박사논문, 드루대학교, 2018, 15에서 재인용.

님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셔서 한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참여는 다른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시고,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기능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윗은 “좋은G.O.O.D 교회는, 즉 문밖으로 나가는 교회 Get Out Of Door”가 되어 하나님의 참여에 동참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의 참여로 그 운영되며 가치를 보존하며 발전되어 간다. 참여는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의 공통분모이다. Epic 교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참여자이다. 예를 들어 예배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심지어 설교의 작성과 행위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의 참여를 배제하고서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교의 행위에 있어서 설교자 외에 봉사자들에 의해 미디어의 활용과 음향 전기기기를 비롯하여 설교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참여와 기여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신학적 갈등의 요소가 농후할 것을 간파한 스윗은 “참여하는 열망과 실제 참여 사이에 불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정해진 틀이나 전략적인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참여 전략이 아니라 참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³²라고 제안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권하는 교회와 참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유도하면서 교회의 과제로 남기는 듯하다.

³²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6.

이미지(Images)를 보여주는 교회

Epic 교회의 세 번째 요소는 이미지(Images)이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다. Epic 교회는 ‘Word’도 중요하지만 ‘Image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형질과 성격 그 본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이미지는 상상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유를 두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면서도 중요하다.

역사상 이미지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사건은 리처드 닉슨과 J. F. 케네디의 미국 대통령 선거전으로 기억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닉슨의 승리를 낙관했으나 이미지 대결의 실패로 닉슨은 낙선했다. 당시 텔레비전에 비친 닉슨의 모습이 불한당이나 산적 같은 모습이었다. 반면 케네디는 젊고, 생기 있는 모습이요 미래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때의 선거에 대해 이미지 선거로 회자한다. 이후 미국의 대선에는 예외 없이 이미지 참모들이 세워지고 선거 전략의 최고 비중을 이미지 제고에 두는 것은 낯설지 않다. 즉 이미지 관리가 성패의 관건이 된 시대이다.

스윗은 모든 스타벅스의 성공에 이미지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거론한다. 모든 스타벅스는 각 매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구조가 다 다르다. 그러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미지는 다 똑같다. 이미지를 통해 스타벅스의 사명과 독특한 브랜딩을 보여준다. 스윗은 커피 잔과 간판에 프린트해서 문화 전쟁과 혼란스런 미디어의 틈바구니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텍스트를 마시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브랜드는 영혼의 타투이다.” 라고 했다.

EPIC의 경험은 힘을 발생시키는데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그래서 그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미지에겐 더 큰 힘이 있

다.”³³라고 주장한다. 스타벅스가 커피 산업의 막강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성공한 이유 중에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친숙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그 체험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교회의 이미지를 대부분 예배당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의 부인을 상징하는 닭을 십자가 위에 조그맣게 새겨 놓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두기도 했다. 로마 부근의 카타콤에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물고기 형태가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가슴에 품고 있는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도 교회의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를 표현하는 더 많은 이미지를 열거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미지들은 교회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선(善)기능으로만 작용했을까 반문해 본다. 대체로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고 정죄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을 향해 다가서려는 교회의 노력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해 간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지는 과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였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길에서 서로 갈라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즉 교회의 힘을 분산하는 매개도 되었다.

그래서 정훈택은 교회가 이미지화 작업에 뛰어들 때 염두 해야 할 세 가지 위험

³³ Ibid., 138.

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교회의 이미지화 작업은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위험을 감지하고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전도나 목회 사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이미지 뒤에 감추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른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속에 위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렇게 위장된 교회의 이미지는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전술로 이해되겠지만 구도자들에게는 교회의 본질로 오해되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해를 깨기 전까지는 결코 수정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³⁴

조악한 이미지는 제품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친다. 이미지이냐 말이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도 중요하고 말도 다 중요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미지로 풍성하다. 성서는 단순한 명제와 수학적 공식으로 진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기술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다. 이미지와 은유와 내러티브와 상징과 노래와 시로 충만하다. 기독교는 이미지의 종교다. 태초에 로고가 된 로고스가 존재하셨고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인간의 이미지 100%로 존재하셨고, 종말에는 인간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방하며 닮아갈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써 로고스의 로고이시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주제문을 들고 원리와 교리를 설명하려는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라는 훨씬 힘 있는 카드를 포기하지 말고 구도자의 삶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³⁴ 정훈택, “예수님이 요청하신 교회 이미지,” *목회와 신학* 10월호(1997), 51.

관계(Connection)를 맺는 교회

Epic 교회의 네 번째 요소는 관계(Connection)이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모든 사람은 관계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날 비대면을 시대를 맞이했지만 인터넷이라는 비장소적 광장에서 분초를 다투어 모임과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간성이 관계 지향적이라는 개념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준민은 관계의 법칙이 관계가 재능과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부요해도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 지는 것을 보았다... 관계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그토록 아름답던 가정이 깨어질 때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었다.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지식과 기술이 훌륭해도 관계 기술이 부족하면 자신이 처한 공동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관계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 성공이 결정되고, 승리가 결정 된다.³⁵

스윗도 EPIC의 네 요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EPIC 인생이 만들어낸 경험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그 경험에 참여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우리가 참여할 때 그 경험은 중요해지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들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EPIC의 네 번째 요소인 관계로 이끄는 일종의 서문의 역할을 한다.³⁶

자연스럽게 EPIC 교회는 관계의 회복과 관계를 목적인 교회의 존재의미를 요구하게 되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한 피조물 간의

³⁵ 강준민, *관계의 법칙* (서울: 두란노서원, 2005), 8-9.

³⁶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71.

관계, 피조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회학적인 면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스윿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관계를 위한 장소로서 기능이 쇠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이나 생활의 제반을 위해 만남의 장소로 거룩한 공간으로 최상이었던 교회가 더 이상 관계지향적인 곳이 아닌 명제적인 장소로 변해간다는 판단인 것이다. 초월적인 진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임으로써 그 신앙을 재확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관계를 맺는 장소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오히려 사람의 자리에 각종 사상과 신조들이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물건들과 과거의 역사의 유산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관계의 대가이시고 독보적 기술을 가지신 분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과거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곳, 지역사회의 축제의 장소였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곳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역할을 잃은 지 오래된 곳이 많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자 교회는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 관리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귀찮고 꺼려졌다. 이렇게 교회가 건물 자체에 가치를 두고 가구와 바닥에 깔린 카펫을 오염시키는 것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가진 관계형성을 위한 최적의 그 놀라운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관계를 제공하던 교

회가 문이 닫히면서 고립이 자리 잡게 되었다.

스윗은 인간의 관계의 단절을 ‘불량연결’이라 표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창조 세계로부터의 네 가지를 단절이라고 말한다.³⁷ 첫째 아담이 동산에서 관계가 파괴하였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망가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진리를 통해 인간들을 절망에서 건져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나 창조 세계와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의 그림자일 것이다. 관계의 법칙을 가르치고 배우고 상호 역동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4중적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³⁷ Ibid., 193.

제 III 장

교회의 재정향 목회전략

목회전략으로서 영적 CPR

본 연구자에게 교회의 재정향을 깨우친 김영래는 사람이 의식을 잃고 맥박을 검출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심폐소생술인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빗대어 영적 생기가 사라지고 침체의 일로에 선 교회에 영적인 CP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⁸ 그는 영적 CPR이란 Congregation(모임)과 Prayer(기도)와 Reading the Bible(통독)를 염두하고 조직한 단어이다. 모임과 기도와 성경 읽기는 교회와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이며 이 세 가지를 통해 추진력을 얻어야 공동체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할 것이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레너드 스윗이 사용한 단어인 Reorientation(재정향)을 상기한다.

김영래는 스윗이 ‘orient’ 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흥미롭게 여겼다. 지난 20세기 초 동양(orient)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야 말로 현대의 한국 교회 뿐 아니라 위기 속에 놓인 세계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일차적인 재정향의 목적지라는 것이다. 왜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과 과정 중의 현상과 이후의 영향력을 주목했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의 때와 같이 기독교

³⁸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249.

스스로가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기독교의 본질을 복원하려는 영적 현상이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돌아가려는 재정향성의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영적 CPR이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 뿐 아니라 성경에 소개된 초대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공통으로 드러나는 현상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본 연구자의 목회의 롤 모델은 초대교회 목회자요 선교사인 바나바요, 그가 사역한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된 안디옥 교회를 목회현장에 구현하는데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영적 CPR을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이들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대 규모의 회심이 이루어졌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한 두 사람씩 지속적인 회심이 이루어져 마침내는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³⁹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한다. 그 바나바를 통해 또다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게 된다.⁴⁰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된 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심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서 영향을 끼치고,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

³⁹ 행 11:19-20(개역개정)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⁴⁰ 행 11:24(개역개정)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다. 안디옥 교회서 선교적 교회의 좋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 예수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는 현상이야 말로 건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안디옥 교회는 모임을 통해 회심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모임은 회심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한 편견을 깨뜨렸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과 전도를 연구한 마이클 그린은 이런 편견을 깨뜨린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자기 교회 밖을 내다보는 교회’ 라며 이렇게 설명을 추가했다.

안디옥 자체가 하나의 선교 현장이었다. 안디옥 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그들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는 신경 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활방식이 된 사람들과 교회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뺏어갈 것을 꿈꾸었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만일 그들이 안디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민족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았었다면 과연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이다.⁴¹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편견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편견, 타 종교에 대한 편견
 ㉗, 교회 밖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는 선교적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훈련되었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깨뜨릴 참 위험한 편견이다. 또한 복음

⁴¹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정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57-60.

전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저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거 할 뿐이다. 그러니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의 본질을 오해한 편견이다.

그래서 김영래는 선교 100여 년 만에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대위임을 기억하며 선교를 재발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ongregation(모임)과 Prayer(기도)와 Reading the Bible(성경통독)를 통해서 추진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견고하게 그리고 서로 균형 있게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고,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교회의 대 부흥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⁴²

EPIC을 적용한 영적 CPR 프로그램 개발

Congregation(모임) 프로그램

일생을 지내는 동안 사람은 여러 형태의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 사람들은 작은 모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안정감으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 다른 사람을 경험하며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하며 자기를 알린다. 모임을 통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모임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이 작은 모임은 구성원들의 요구를 채워주며, 또 그 조직에서 부여한 역할과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다. 어떤 모임은 구성

⁴²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250.

원의 결속과 역할의 수행이라는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모인다. 사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오래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상호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론 니콜라스는 교회 안에 조직된 소그룹 모임이 역동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여러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교회생활을 그려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안정된 교제를 하며, 한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음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또 그의 명령대로 피차 복종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즉 그런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갈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각종 소그룹들이 서로 그물처럼 얽혀져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결국 그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그런 교회라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⁴³

니콜라스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완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물론 각 모임들마다의 고유의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를 수행할 역할과 과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은 어떤 특징적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더 강조되기도 한다. 교회 안에서 고유의 역할과 과업을 이루기 위해 특정 요소가 강조된 모임들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⁴³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17.

⁴⁴ Ibid., 33.

<표1> 기능을 강조한 모임들의 사례

<p>사례1) 교회학교 분반 공부 독서토론, 성경공부 모임 마나바 사역, 일대일 양육, 제자훈련</p>	<table border="1"> <tr><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양육</td><td style="text-align: center;">예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선교</td></tr> </table>	양육	예배	교제	선교
양육	예배				
	교제				
	선교				
<p>양육에 초점을 맞춘 모임</p>					
<p>사례2) 성가대 기도 모임 찬양팀 모임</p>	<table border="1"> <tr><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배</td><td style="text-align: center;">양육</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선교</td></tr> </table>	예배	양육	교제	선교
예배	양육				
	교제				
	선교				
<p>예배에 초점을 맞춘 모임</p>					
<p>사례3) 남·녀 선교회 취미동호회 각종 후원회 등</p>	<table border="1"> <tr><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제</td><td style="text-align: center;">예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양육</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선교</td></tr> </table>	교제	예배	양육	선교
교제	예배				
	양육				
	선교				
<p>교제에 초점을 맞춘 모임</p>					
<p>사례4) 각종 전도팀 봉사 위원회 선교 위원회, 심방 위원회 등</p>	<table border="1"> <tr><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선교</td><td style="text-align: center;">예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양육</td></tr> </table>	선교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예배				
	교제				
	양육				
<p>선교에 초점을 맞춘 모임</p>					

사실상 어떤 모임이든지 기능과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모이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난다. 또 그 모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빨리 다가가는 성과도 있고 열매도 풍성하다. 그러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모임이 생기가 사라지고 사랑의 온기도 식어지고 의무감만 팽배하고, 건조해지는 경향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각 모임들이 그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잘 감당하고 구성원들이 모임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건강하게 유지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치우치지 않고 잘 뒤섞여져야 한다는 것이 니콜라스의 주장이다.

<표2> 네 요소가 균형 잡힌 모임

선교	예배
교제	양육

본 연구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할 뿐 아니라 목회전략으로써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 교회의 가치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구성원들 사이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역할을 분할하는 태도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침체된 모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임을 계발하기 위한 기획 모임’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모임의 계발을 위해 모임을 갖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한 시간의 할애와 참여를 위한 호응의 유발을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목회현장에서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중심으로 어브레이 멜퍼스의 ‘침체된 교회 부흥전략’을 가지고 독서토론을 시작했다. 이 독서 모임을 통해 멜퍼스의 모임을 위한 준비과정을 일곱 단계를 앞으로 계발해 갈 모임들의 조직 활동에 적용하기로 했다. 멜퍼스가 내놓은 침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리더십의 준비과정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지원 확보
- 2단계: 전략적 리더십 팀 모집
- 3단계: 회중들과 의사소통을 이용하라
- 4단계: 변화에 대한 교회의 준비성 평가
- 5단계: 교회의 사역 평가하기
- 6단계: 기획 과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대 시간 설정
- 7단계: 영적 기초 다지기⁴⁵

이런 일곱 단계의 과정을 통해 독특하고 참된 공동체를 갖춘 다양한 모임들이 조직되고 이 조직된 모임들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극대화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것을 기대했다. 이런 리더십의 준비과정을 통해 다른 교회를 모델을 베끼는 모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참된 모임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차례 전략회의와 교회 여러 실정을 고려하여 모임들을 재정비하는 절차를 감행하였다. 기존 모임들 가운데 회생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모임들에게 힘을 불어 넣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능적 요소가 확대되어 균형을 잃은 모임들에 영적 CPR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적 요소가 강한 모임에는 공동체성을 부양하는 처방을 내렸다. 공동체적 교제로만 흘러가는 모임에는 예배 의식을 고양시키는 리더십으로 교체하거나 훈련을 하였다. 양육에 치우친 모임에는 선교에 힘을 기울이도록 해서 배움과 삶이 균형 잡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공동체는 교제를 강화하였는데, 선교 의식이 부족할 때 공동체적 교제도 약해진다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⁴⁵ Aubrey Malphurs, *교회 부흥전략*, 성종국 역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7), 89-154.

그리하여 교회 안에 기존 모임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새로 생기는 모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임들의 실제적 활동과 내용들은 다음 IV장 영적 CPR 프로그램의 실행의 2. 교회 재정향을 위한 영적 CPR의 실행 부분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Prayer(기도)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은 물질의 힘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과 무기는 오직 기도이다. 예수님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밝혔다.⁴⁶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이다. 그래서 전병욱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삼일교회는 젊은이들의 기도 훈련을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사회의 미래가 자신들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자신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확신이 있다”⁴⁷

피터 왜그너는 ‘기도의 용사 시리즈’에서 서양의 교회는 기도 운동이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낯설지 않다면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였다. 1910년대에 일어난 기도 운동이 1970년대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 기도운동을 통해 거듭 성장한 교세는 서울에

⁴⁶ 눅 10:19 (개역개정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⁴⁷ 전병욱, “목회자가 영권을 잃으면 재앙이다,” *목회와 신학* 6월호(1996), 108.

서 밤에 도시의 야경을 구경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붉은 네온 십자가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왜그녀는 한국의 이런 강력한 기도회와 기도 운동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기도 운동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⁴⁸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기도의 능력이 불신하거나 기도가 과거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기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표현이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왔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육성해 왔다. 기도가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작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비대면 시대라는 영성의 쇠퇴기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강성열은 ‘예전만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과학과 합리성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영성의 기준이 되고 있다’⁴⁹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침체 일로의 교회 상황에서 영적 생명력을 되살릴 길은 말씀과 기도운동 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목회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서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면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 CPR의 역할로서 기도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늘려갔다.

⁴⁸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21-23.

⁴⁹ 강성열, “성경에 나타난 기도유형들과 그 특징,” *목회와 신학* 6월호(1996), 52.

또한 교회가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늘려가는 쪽으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기도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IV장 영적 CPR 프로그램의 실행의 2. 교회 재정 향을 위한 영적 CPR의 실행 부분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Reading the Bible(성경읽기) 프로그램

오늘날은 미디어의 시대이다. 스윗의 말처럼 ‘Word’ 보다는 ‘Images’ 가 친숙해진 시대이다. 책보다는 그래픽과 영상에 호감을 두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에는 성서를 분석과 해체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였는데 이제는 활자로 된 책으로서 성서가 예배당 구석구석에서 방치되고 처리 곤란한 애플단지 구박받는 신세가 되었다. 최근 본 연구자는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예배당에 비치된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성도들이 두고 간 성경들을 정리하고 치운 적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석구석에서 빛을 보지 못하여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 피어 병들고 상처 입은 성경책을 수십 권이나 발견하였다. 마치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정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비교가 된다. 그 때는 서기관 사반이 율법을 발견하여 요시야 앞에서 낭독하였다는데, 그 시절은 성경이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성경이 너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여서 문제이다.

김영래는 성서의 회복(ReBible)을 말할 때 단순히 책으로서 성경을 다시 읽

고 연구하는 것이 성서 회복의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고 했다.⁵⁰ 일리 있는 혜견이다. 성경의 의미를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단순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 장까지 읽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과 성경이 한 몸처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⁵⁰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296.

제 IV 장

영적 CPR 프로그램의 실행: 미래로교회

미래로교회의 상황

미래로교회의 전신은 구로반석교회이다. 8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한창일 때 서울 구로구의 공장들이 즐비한 신도림 역 근처에 개척한 구로반석교회는 순복음계열의 목회자가 목회하며 성령 운동과 은사 집회를 통해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교회였다. 초창기에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몇 년이 지나서는 그 지역의 공장부지를 얻어 예배당으로 개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장년 성도만 오백 명이 넘고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을 포함하면 출석 성도가 천 명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다. 부흥집회, 산상 기도회, 금식 기도, 은사 집회 등으로 당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교회였다. 그러던 중에 목회자의 부정한 재정 운영이 문제가 되었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 탄로되었다. 그런 목회자의 윤리 문제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력배를 이용한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 성도들은 교단을 바꾸고, 장로교 목사를 새로 모시게 되었다. 이 일로 교회 재산권을 두고 지난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게 되었다. 일부 목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고 장로교 목사 1인, 장로 2인, 세례교인 약 삼백 명이 새 출발하였다. 그러나 결국 교단을 바꾼 것이 빌미가 되어 10년 재판 끝에 패소함으로써 교회의 재산과 당시 예배 처소를 빼앗기게 되었다.

여기저기 예배 처소를 구하던 중에 노회의 도움으로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성도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서울의 구로동 지역인데 광명시 소하동으로 이사한다는 말에 교회는 또다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교회가 광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또 탈퇴하였고 분열의 아픔을 한 차례 더 경험한 후 교회는 구로반석교회라는 이름에서 미래로교회로 개명하고 현재의 위치에 2011년도에 설립 예배를 드렸다. 미래로교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교세는 그동안 1/3로 감소되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자의 교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가 미래로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2019년 12월에 부임하였다.

미래로교회 구성원들은 과거의 교회의 부흥의 자부심과 함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체의 과정을 지내오면서 갖게 된 상처와 패배 의식도 있다.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구성원들의 평균연령도 흘러간 세월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충성스러운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길이 없다. 현재 Covid-19의 환경 속에서도 출석률이 줄지 않았고, 재정도 예산 대비 100% 이상 결산할 만큼 저력이 있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미래로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재정향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성도들 내면에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CPR을 실행하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단단한 리더십으로, EPIC 교회로 변모되어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교회 재정향을 위한 ‘영적 CPR’ 의 실행

Congregation(모임) 프로그램 실행

본 연구자는 미래로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의 재부팅을 위해 영적 CPR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Congregation(모임)을 재편하고 새롭게 조직하고자 평소 성도들이 교회에 만들어지기 바랐던 모임들을 조사하였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모임들의 다음과 같다.

① **또래모임**: 연령이나 직분이 비슷한 또래들의 모임이다. 이 또래 별 모임은 비슷한 인생의 관심사를 나누는 모임이고, 직분이 같은 모임은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② **취미모임**: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상황에서 교회도 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바쁜 일상이 교회 안에서 교제 활동의 한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을 이용한 취미 모임을 조직하였다. 또 평일에 낮 시간을 이용한 취미활동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를 회복하고 교회 밖의 전도대상자들과 관계를 넓혀 가면서 불신자들과 접촉이 용이하게 될 것이 기대되는 모임이다.

③ **세대결함모임**: 이미 교회 밖에는 세대 간의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화목을 이루고 소통이 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만들어진 모임이다.

④ **봉사활동모임**: 교회 안에 어둡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갖고, 또한 밖으로 시선을 향하는 모임이다. 교회 안에서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대 지역사회와 멀리는 선교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⑤ **목장모임의 활성화:** 기존에 운영되었던 목장모임이 20년 동안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였다. 이런 기존의 목장모임에 새로운 동기 부여와 재가동할 수 있는 영적인 엔진이 필요하였다.

⑥ **주일오후예배의 개편:** 주일 오후예배가 오전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마치면 진행되는데 같은 형식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전예배와는 다르게 진지하지 않고 유쾌하면서도 공동체를 결속하고, 각 모임들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로 변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모임들이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가급적 목회자들이 주도하여 모이기보다는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소모임의 4가지 요소인 예배, 선교, 교제, 양육이 균형 잡힌 모임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또래모임: VISION2040 워크샐

미래로교회는 소그룹의 활동이 기존의 ‘목장’이라는 예배 요소가 강한 모임 외에는 활발히 운영되는 것이 없었다. 이 ‘목장’마저도 매주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몇 개가 되지 않다 보니 성도들의 결속과 삶의 나눔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각 기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워크샐을 시작하였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모임들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연석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가졌다. 이 모임을 ‘비전2040워크샐’이라 명칭하고 다가오는 교회 설립2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는 모임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이 모임은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를 청

취하고 그 내용을 토의 제목으로 내놓고 심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된 임들이 계발되기 시작했다. 이 ‘비전2040워크숍’은 교회를 EPIC교회로 만들어 가는 전략적인 모임이 된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각 기관과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게 하였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VISION2040 WORKSHOP’의 모습



취미 모임

취미 모임은 갈렙산악회(2020년 3월 발족), 성지순례팀(2020년 1차 순례팀 발족), 자전거동호회(2020년 10월 발족), 족구클럽(2020년 11월 발족), 2030캠핑클럽(2021년 발족 예정) 등으로 다양한 요구에 따라 속속 발족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요, 경건을 힘쓰는 영적 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요, 기도하는 곳이요, 복음을 위해 영적 전투를 감행하는 군대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믿는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반면 영감 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는 양육과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신령한 예전적 모임뿐 아니라 공동체적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만든 모임에 있어서 결코 소외되지 말아야 할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교제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⁵¹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상징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교제를 위한 모임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을 고취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여타 취미 모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

론 니콜라스는 그의 책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며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피차 격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줌으로 가능하다”⁵²라고 교회의 구성원들의 일상적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했다.

⁵¹ 사도행전 2:44-47 (개역개정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⁵²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29.

<그림2> 갈렘산악회와 성지순례팀의 제암리교회 방문



유해무는 이미 교회가 공동체성을 간과하고 개인주의 가속화에 대해 여유롭
게만 바라보게 되면 인간 상호간의 연결보다는 단절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런 현상
이 가져다 준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밝혔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군중 속의 고독’ 현상이 점차 누적되면서 공동체와 공
동체성에 관한 관심이 가시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면 교회 안에
‘익명성을 바라는 점잖은 교인들’ 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목회는 이런 다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교인들이 이런 목회를 일종의
문화적인 세련미라고 추겨 세우는 지경까지 왔다. 그들에게 예배와 설교에는 1
시간이면 충분하고, ‘성도의 교제’란 거추장스럽게 되었다. 예배시간 직전에
자동차로 물밀 듯이 몰려와서 축도 송영과 더불어 썰물처럼 떠나간다.⁵³

한국교회가 개인의 신앙 체험을 강조하여 복음전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
고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의 후대들이 성

⁵³ 유해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4월호(1999), 98-99.

례전을 의지하고 사제에 의존하던 암묵적인 신앙을 반대하고 말씀 선포를 강조하였으며, 성경에 기초한 명백한 개인의 고백적 신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것은 근간 500년 동안 개신교회의 지속적인 경향이었다. 또 이런 경향이 분리주의적인 청교도 신앙과 이에 기초하여 미국의 부흥운동으로 정착 되었음은 교회역사가들이 인식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개혁주의 신학사상과 북미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런 개인주의 신앙관과 부흥운동의 기초 위에 한국교회가 성장하였지만 문화 토착화와 공동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미온적인 경향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로교회는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립이 깊어지면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교회의 취미모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연령층마다의 취향이 있고, 직업군에 따라 취미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양하기에 한두 가지의 취미모임으로 국한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다양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하되, 공동체의 요소인 예배와 선교와 양육의 요소를 소홀히 하지 않는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산악회를 조직하여 3,5,7,9,11월에 연중 총 5회에 걸쳐 교회에서 가까운 명산이나 휴양지로 야외 예배의 형식으로 다녀오게 하였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재미의 요소도 가미하였다.

또 한국교회 역사의 현장과 이스라엘과 유럽의 기독교문화 유산을 탐방하는 ‘성지순례팀’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젊은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제암리 교회 방화 박해 사건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회를 접할 수 있어서 신앙적

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남성 직장인들을 위한 자전거 동아리와 족구동아리는 주말을 이용한 취미활동 모임이다. 이를 통해 교제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접촉도 용이하고 관계전도에도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 산악회 모임을 통해 교회에 등록된 성도도 계시고, 족구동아리를 통해 지역의 한 가정이 교회를 방문한 경우도 있으니 그 목적하는 바를 취미 모임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오후예배의 개편: 청바지DAY 청춘 축제, 행복한 가족 사진전

오후예배는 각 기관과 부서의 헌신예배와 찬양 콘서트, 레크리에이션, 전도 훈련, 세미나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이 오후예배를 위해 교회의 각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준비에 열정적이 되었다. 특히 다음의 사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주최하고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청바지 데이’ 행사 장면이다. 이 날은 정장 차림이 아닌 남녀노소를 비롯 목사도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진행하였다. 교회가 한층 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의미있는 행사였다. ‘청바지’는 젊음과 반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미래로교회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댄스 경연대회, 미스터 스마일, 미스 스마일 선발, 라펜 말야 등의 순서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모습이었다. 청춘들이 질문하고 기성세대들이 대답하는 토크 순서도 갖고, 교회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기고 ‘보물찾기’도 진행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가족사진전’을 동시에 열어서 교회 복도와 교육관에 전시하였는데, 모든 가정들이 참여하여 기쁜 추억을 남기는 행사가 되었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바지DAY ‘청춘 축제’



세대융합 모임: 아멘(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

‘아멘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다.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일반적으로 기업체, 학교 등에서 우수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배가 후배나 신출내기들의 대상으로 하고, 대학에서 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예비 교사)들을 돕는 것에 활용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멘토링의 의미를 교회에서 기성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한 사례이다. 멘토링을 통해 다음세대들이 신앙으로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진로 계획,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 멘토가 다음세대인 멘

⁵⁴ <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인용).

티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성세대 역시 자존감이 높아지는 선순환 과정을 경험하므로 교회 안에서 단절된 세대 간의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미래로교회는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70% 이상이고, 청년을 비롯한 다음세대들이 30%가량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1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래로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여 영적 돌봄과 양육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 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는 4P운동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P는 PRAYER(기도하기)이다. 두 번째 P는 PHONE(전화 걸기)이다. 세 번째 P는 PARTY(생일파티 해주기)이며, 마지막 P는 PARTICIPATE(아멘 축제에 동참하기)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아멘 프로젝트 담당자로 유년부 목회자를 세워 관리하게 하고,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아멘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교회가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와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어서 관계 전도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3> 아멘 프로젝트의 4P

1. PRAYER 기도하기: 멘티를 위해 매일 한번 기도하기/매일 오후 1시
2. PHONE 소통하기: 멘티를 위한 학부모와 한 달에 한번 소통하기/ 매월 1일
3. PARTY 파티하기: 멘티를 위해 일 년에 한번 생일 챙겨주기
4. PARTICIPATE 참여하기: 멘티와 함께 아멘 축제 참여하기/ 11월15일 ‘아멘축제’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프로젝트 포스터(현수막)





아이를 위한 멘토링 사업

함께라서 다음세대

아멘 프로젝트





1



Pray
기도하기
100.100

2



Phone
소통하기
100.100.100

3



Party
선물주기
100.00

4



Participate
참여하기
100.100.100.000



• 우리는 아멘사역자 •

이희희의 멘토 이규선 권사, 이재인의 멘토 김동희 권사, 박희영의 멘토 조윤희 장로, 조은수의 멘토 조재우 장로, 조진규의 멘토 김기철 장로, 유종서의 멘토 은선재 장로, 조은수의 멘토 김민희 장로, 김어은의 멘토 황영수 장로, 김혜영의 멘토 김윤지@ 권사, 김수민의 멘토 김명희 장로, 황규민의 멘토 김옥실 권사, 조진영의 멘토 정규성 장사, 이준우의 멘토 김명애 권사, 이서연의 멘토 박희승 장사, 박지민@의 멘토 김경태 권사, 박지민@의 멘토 홍영희 권사, 신우진의 멘토 이윤희 권사, 장은의 멘토 박종원 권사, 황규원의 멘토 김근선 장사, 김소라의 멘토 김승식 장사, 황지민@의 멘토 조윤희 장사, 변종혁의 멘토 오수원 장사, 정서연의 멘토 조승원 장사, 변유나의 멘토 김민수 장사, 오은진의 멘토 김연선 권사, 김하은의 멘토 안경원 권사, 이서민의 멘토 이희숙 권사, 이이연의 멘토 이원희 장사, 김우미의 멘토 박월선 장사, 김민현의 멘토 박연순 장사, 현도윤의 멘토 손영실 장사, 박영서@의 멘토 옥은희 장사, 고예년의 멘토 김다란 장사, 이은우의 멘토 이연수 장사, 이원순의 멘토 이희복 장사, 심미연의 멘토 박금자@장사, 임재우의 멘토 이태은 장사, 임은차의 멘토 남희순 장사, 윤시환의 멘토 정현숙 장사, 남은권의 멘토 정윤지 장사, 남유선의 멘토 황정자 장사, 남은우의 멘토 정남희 장사, 남은우의 멘토 수정란 장사, 윤준의 멘토 김다정@ 장사, 윤우의 멘토 상숙희 장사, 김도우의 멘토 조성미 장사, 박아연의 멘토 현수원 장사, 남유선의 멘토 조효숙 장사, 남재현의 멘토 장후자 장사, 남유선의 멘토 김향순 장사, 이은성의 멘토 황금숙 장사, 이은희의 멘토 이미향 장사, 이현희의 멘토 박금자@ 장사, 이서민의 멘토 황경숙 장사, 김미소의 멘토 김진수 장사, 김사영의 멘토 고은선 장사, 김희류의 멘토 박해원 장사, 이서연의 멘토 정은영 장사, 이서연의 멘토 최선희 장사, 이이연의 멘토 박은숙 장사, 김은유의 멘토 이명숙@ 장사, 김은상의 멘토 김미영@ 장사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프로젝트 연결표

아멘 프로젝트 교우 자녀 및 멘토 명단

	이름	학교	멘토	부모/연락처
1	이재혁 (19세) 안순임권사손자	미안마고등학교3학년	이규선 권사	
2	이재민 (19세) 안순임권사손자	미안마고등학교3학년	김봉화 집사	
3	박해랑 (19세)	신현고등학교3학년	조을성 장로	
4	조현수 (17세)	양정고등학교1학년	조재우 장로	
5	조한나 (16세)	인천구산중학교3학년	김기훈 장로	
6	유중서 (15세)	영남중학교2학년	윤선제 장로	
7	조운수 (14세)	목운중학교1학년	김인희 장로	
8	김하은 (16세) 김옥심권사손녀	중학교3학년	황영수 장로	
9	김하영 (13세) 김옥심권사손녀	초등학교6학년	김춘자B 집사	
10	김수민 (13세) 조을성장로손녀	중국한인학교6학년	김영태 장로	
11	황규민 (13세) 황영수장로손자	관문초등학교6학년	김옥심 권사	
12	조한빛 (12세)	부내초등학교5학년	정규성 안수집사	
13	이연우 (12세) 조재우장로외손자	상현초등학교5학년	김명애 집사	
14	이서연 (11세) 조재우장로외손녀	상현초등학교4학년	곽희승 안수집사	
15	박지민 (11세)	소은초등학교4학년	김경태 안수집사	
16	박지원 (11세)	소은초등학교4학년	홍경석 안수집사	
17	신우진 (11세)	신구로초등학교4학년	이유희 권사	
18	장준 (10세) 박금자권사외손자	풍덕초등학교3학년	박중현 안수집사	
19	황규현 (10세) 황영수장로손자	관문초등학교3학년	김근순 집사	
20	김설아 (10세) 김기훈장로손녀	강릉초등학교3학년	김중식 안수집사	
21	황차민 (8세) 황영수장로손자	나래초등학교1학년	조용선 안수집사	
22	변중혁 (7세) 육순희권사손자	사창유치원7세	오주현 안수집사	

	이름	학교	멘토	부모/연락처
23	정서현 (4세) 김인수집사외손녀	오즈의마법사어린이집4세	조승현 안수집사	
24	변유나 (5세) 육순희권사손녀	사창유치원5세	김인수 집사	
25	오현진 (45개월) 김근수집사외손자	롯데어린이집	김안선 권사	
26	김하준 (24개월) 김기훈장로손자	푸른바다어린이집	안명선 권사	
27	이서진 (23개월) 이영상집사손자	사랑모아어린이집	이희숙 권사	
28	이희연 (3세) 조재우장로외손녀	포래어린이집	이현희 집사	
29	심이안 (13개월) 한수원권사외손자	미국아틀란타	박금자B 권사	
30	김유이 (11개월) 김중식집사외손녀		박월선 권사	
31	김민찬 (17개월) 정규성집사외손자	어린이집	백연순 권사	
32	정도윤 (13개월) 정규성집사손자	어린이집	손영심 권사	
33	박영서 (17세)	세종고등학교1학년	육순희 권사	
34	고에덴 (27개월)		김애란 집사	
35	이현주 (18세) 조성예권사외손녀	마석고등학교2학년	이인수 권사	
36	이한솔 (15세) 조성예권사외손자	마석중학교2학년	이태복 집사	
37	임채운 (14세) 조성예권사외손녀	문정중학교1학년	이태분 권사	
38	임현지 (12세) 조성예권사외손녀	문정초등학교5학년	남희순 집사	
39	윤시훈 (12세) 조성예권사손자	위례초등학교5학년	명현숙 권사	
40	윤권 (8세) 조성예권사손자	위례초등학교1학년	김미경A 집사	
41	윤우 (5세) 조성예권사손주	위례유치원	성숙희 집사	
42	남윤건 (9세) 이규선권사손자	미국버지니아주	임윤지 권사	
43	남윤서 (6세) 이규선권사손자	미국버지니아주	황경자 집사	
44	남윤우 (6세) 이규선권사손자	개봉동유치원	정남희 권사	

	이름	학교	멘토	부모/연락처
45	남운호 (14개월) 이규선권사손자	어린이집	주정란 집사	
46	김도윤 (36개월) 조을성장로손자	어린이집	조성예 권사	
47	백아연 (신생아) 박월선권사손녀		한수원 권사	
48	남우술 (18세) 이태복집사손주	시흥능곡고등학교2학년	조효숙 권사	
49	남해술 (15세) 이태복집사손주	시흥능곡중학교3학년	방춘자 집사	
50	남우선 (8개월) 이태복집사손주		김학순 권사	
51	이운성 (11세) 이명숙집사손자	초등학교4학년	황금숙 권사	
52	이윤지 (8세) 이명숙집사손녀	초등학교1학년	이미향 집사	
53	이한 (6세) 이명숙집사손자	유치원	박금자A 집사	
54	이서은 (4세) 이명숙집사손녀	유치원	황경숙 집사	
55	김은유(8세) 방춘자집사손자	초등학교1학년	이명숙A 집사	
56	김은상(6세) 방춘자집사손자	유치원	김미경B 집사	
57	김미소(10세) 방춘자집사손녀	초등학교3학년	김진수 집사	
58	김사랑(8세) 방춘자집사손녀	초등학교1학년	고은선 집사	
59	김하루(4세) 방춘자집사손자	어린이집	양해진 집사	
60	이서현(7세) 김진수집사손녀	유치원	정은영 집사	
61	이시원(8세) 김진수집사손자	초등학교1학년	최선희 집사	
62	이예원(4세) 김진수집사손녀	어린이집	박은숙 집사	

봉사 모임: 사랑의 도시락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메스컴의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이럴수록 교회는 연대와 관심, 말 걸기와 경청하기가 절실하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연결 욕구와 생존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접촉의 형식에서 비대면의 방식으로 바뀔 뿐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이웃사랑의 가치를 더욱 함양해야 한다. 안명숙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재난 시대 위기 속에서 교회의 위로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 양극화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무망감과 정신 문제로 인해 자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예상되는 노인, 청소년, 대학생, 다문화 가정, 우울증, 긴급 경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에 대한 돌봄과 위로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⁵⁵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미래로교회는 여느 한국교회처럼 노인연령층의 성도들이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는 70세 이상이면서 독거 어르신들도 상당하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2020년 3월부터 자가 칩거 상황이 장기화 되었다. 평소에는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출석을 하시던 어르신들이 고위험 군에 해당되다 보니 교회와 연결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으니 건강을 위해 더욱 잘 드셔야 하는데 활동도 제한적인 데다 음식 섭취도 변변치 않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는 긴급히 이런 성도들을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 밖으로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⁵⁵ 안명숙, *재난 시대를 극복하는 한국교회* (서울: 킹덤박스, 2020), 227.

도움이 필요로 한 어른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밥과 반찬들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조리하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배달하실 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또한 음식을 준비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해 줄 것을 광고하였다. 혹자는 “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음식을 나누어 주느냐? 돈을 지원하면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음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음식의 문제는 무엇보다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것의 적절한 조달과 섭취 여부가 생명의 지속과 단절을 결정한다. 또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는 성서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이다. 본 연구자에게 이런 도시락 사역에 통찰을 준 차정식은 예수님의 음식과 식사의 신학적 가치를 음식 자체에 두지 않고 음식을 통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문제에서 찾았다. 차정식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신약성서 시대에도 먹고 사는 일의 일상적인 문제는 절박한 현실이라서 가족공동체를 떠나거나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되는 경우는 먹고 사는 일을 안정되게 해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봉착하게 되었다...(중간 생략) 예루살렘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먼저 불거진 내홍 역시 헬라 파와 히브리 파 과부들의 밥그릇 싸움이였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의 신학적 의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구는 예수께서 친히 기도문까지 만들어 설파한 다음의 청원구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⁵⁶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가치 있는 사역에 생명과 생명을 잇는 귀중한 의미를

⁵⁶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91-193.

부여하게 되었다. 2~3일가량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담은 도시락 용기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집까지 배달하기 시작했다. 이 사랑의 도시락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나눔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첫 번째 사역이 된 셈이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조리 팀과 도시락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팀과 도시락



전달

목장 모임: 목장 축제(바나바 사역 세미나)

미래로교회에는 30여 개의 목장이 있다. 약 10명의 목자와 부목자와 목원들로 하나의 목장을 이룬다. 목장이 영적 번식력을 가진 생산적인 모임이 되고 모임을 통해 서로 돌봄을 이루는 양육의 목장이 되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토요일로 날짜를 정하고 목장 축제를 계획하였다.

이 목장 축제는 바나바 세미나를 통해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뿌리내리게 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며, 목장별로 장기자랑대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통해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는 행사이다.

특히 바나바 사역(Barnabas Ministry)이란 교회에 받을 내딛은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자의 목회의 롤 모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에게 영감을 받은 섬김 사역을 체계화 한 것이다. 특히 교회에 방문하여 어색해 마지 않는 새 가족들을 환대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잃지 않고 모두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이 바나바 사역의 핵심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서의 바나바에서 찾았다. 바나바처럼 평신도를 훈련하여 새 가족 정착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또한 한 가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내하여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서 기존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생명 번식의 사역이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장 축제(바나바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는 연구자

Prayer(기도) 프로그램 실행

중보기도학교

: 봄꽃 피어나는 중보기도학교(3월 중), 가을단풍 물든 중보기도학교(9월 중)

중보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의 최고봉이다. 중보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다. 중보기도는 기도로 잘 훈련된 기도사역자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보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타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데 좁게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넓게는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 인류애를 포함하는 위대한 사역이다. 권혁승은 모든 기도는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점에서 중보기도라고 주장한다.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필라’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단어는 중재자로서 기도한다는 의미의 동사 ‘히트팔렐’ (intercede)에서 파생되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있다.⁵⁷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대속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보기도이다.⁵⁸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로 정하고 24시간 기도 소리가 울려 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상상하면 행복하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 사역인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즉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채우기 급급한 저급한 기도에서 탈출하여 중보기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깨우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개인 중심주의의 협소한 신앙을 벗어나 공동체중심의 폭넓은 열린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래교회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일깨우고 사역자들을 계속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 봄과 가을로 4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 단기 기도 강좌를 개설했다.

매해 3월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제히 가동하는데, 가장 먼저 중보기도학교로부터 시작한다. 3월에 개설하는 이 중보기도학교의 이름을 ‘봄

⁵⁷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24).

⁵⁸ 권혁승, “칼럼 기도의 본질인 ‘중보기도’에 대해,” *크리스찬투데이*, 2012.03.16.

꽃 피어나는 중보기도학교’로 정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경호대’를 조직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누어 교회 안에 준비된 중보기도실을 지킨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의 문턱인 9월에 ‘가을단풍 물든 중보기도학교’를 개설하여 이듬해 2월말까지 이어간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의 시간표⁵⁹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4> 중보기도학교 시간표

	1일차(월)	2일차(화)	3일차(수)	4일차(목)
19:00~19:30	경배와 찬양			
19:30~20:30	개강예배	강의Ⅱ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강의Ⅳ “중보기도의 중요성”	강의Ⅵ “능력의 기도”
20:30~21:00	저녁식사 & 중보기도 간증			
21:00~22:00	강의Ⅰ “중보기도 의 필요성”	강의Ⅲ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강의Ⅴ “응답 기도의 태도”	WORKSHOP 기도 경호대 조직

3① 주일예배를 위한 토요저녁기도회(오후 6시)

② 설교자를 위한 중보기도팀(주일 예배와 동시에 중보기도실)

③ 매월 중보기도제목 배포

웬일인지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점점 소홀해지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기도로 돕는 것은 영성이 더 깊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⁵⁹ 이동원, *중보기도사역론* (서울; 나침반, 2011), 이 책의 전체적인 순서를 채택하여 편집한 스케줄임을 밝힌다.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 설교자가 기도를 지원받는 것은 권위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학식과 실력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설교자를 위해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19세기 기도 영성의 대가인 E. M. 바운즈는 설교자가 기도의 지원을 받는 일을 강조하였다.

기도란 설교자에게 그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것으로서 그의 특권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공기가 폐에 필요한 것처럼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또한 설교자가 다른 사람의 기도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설교자는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두 명제는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⁶⁰

바울이 이런 기도의 도움을 받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바울만큼 자신의 능력과 지력과 교양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설교자가 있을까? 바울만큼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고 간청했다. 영적인 영역에서 설교자와 청중이 연합할 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⁶¹ 바운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청중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혔다.

만일 자기 목회자에 대해 불평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자신들의 모든 힘을 쏟아서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다시 말해 겸손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⁶⁰ E. M. 바운즈, *기도의 능력*, 최석원 역 (서울: 청우, 2010), 147-48.

⁶¹ 바울은 그의 거의 서신에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바랐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의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8-19)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후 1:11)라고 했을 정도다.

훨씬 더 성공하였을 것이다.⁶²

본 연구자는 약 30여 년 동안 목회현장에서 설교자로 훌륭히 쓰임 받았던 선배 목회자들 중에 주일예배와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로 돕는 사역자들을 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 그 설교자들은 기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설교 이상의 감동과 역사를 체험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럼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예배를 위한 토요일저녁기도회



⁶² 바운즈, *기도의 능력*, 174-75.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중보기도제목

저에 관하여 성령 사하는 때에 관

2월 중보 기도제목

1. 2021년 영적 비전을 위하여

포아 영적 생활과 삶

실한 열매 거둔 마리로, 살로 충만한 교회

2040(미간: 1000/100)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2.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담임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늘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옥을 강권하게 지켜주소서. 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존중할 때 주님의 재해를 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롭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간행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시고, 사모님과 자녀의 사역과 헌신, 직장 위에 복을 주셔서 늘 건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3. 부목회자, 담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는 성령의 교역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과 기도의 열매가 살아 나타나게 하옵시고, 늘 겸손히 복음은 담배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눈물까지도 사랑하여 공감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교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맑은 사역과 부서에 성령의 열매들이 늘 함께 맺어지게 하옵소서.

중지자와 재직자들이 예배에 모임을 보이며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열정에서 부지런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고 일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 중심으로 재직자들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에 전심을 다 하게 하옵소서. 직분은 하나 다투지 않으시며 오직 흠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아버지인 하나님, 올케드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 생활과 삶들이 거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웃을 찾아가 손잡아주고, 어려움과 짐들을 헤쳐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영적 열매가 거둔 교회로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살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도시락으로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1000명의 예배자, 100개의 무장, 10개성 선교사로 파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손잡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살

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된 삶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늘 감사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라함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절고로 인해 아파하여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만나시고 위로해주소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헌신과 헌신의 손을 얹어주시고, 만유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기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열매가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 시대에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령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따스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계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성도가 말라가고 경제력 위기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열매주시는 소명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에

서로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 코로나19 시대 기간 하나님께서 재단해 주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어려움을 우리를 견뎌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6.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사랑을 따라 인솔한 환경을 떠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국외선교장(전남) 임원(김기영)에게, 정성우(김기영)에게, 김형진(김기영)에게 선교사님 가정과 재정으로 후원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언어, 기후, 음식, 정치, 종교적 상황,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선교사님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랑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못하지만 보람은 선교사로서 해외에 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적 후원에도 힘쓰게 하주소서.



그래서 미래로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현장에서 실현하였다. 주일예배를 위해 스테프들과 찬양사역자들과 예배위원들과 향존직 가운데 자원하는 봉사자들로 구성된 ‘준비기도회’를 토요일 오후에 한 시간 가량 진행한다. 또한 주일예배시간 동시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예배와 설교자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의 효과와 결과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거나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혜로운 일도 아닐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아말렉과 전투를 위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전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배울 뿐이다.⁶³

Reading the Bible(성경읽기) 프로그램 실행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 I - 백일동안성경일독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델이 된 현수



⁶³ 출 17:12-13(개역개정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막(포스터)

Covid-19는 ‘집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주고 이끌어 왔다. 그러다 보니 주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쉼 없이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성경공부 모임, 기도모임, 봉사모임 등 다양한 학습의 장이 마련되었다.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영양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대면 프로그램이 무색하게 되었다. 수동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았던 성도들이 영적 배고픔에 허덕이게 되었다. 평소 자발적인 경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과 경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그나마 평소 개인 경건의 시간(Q.T)을 갖거나 꾸준히 신앙서적을 읽어왔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액정에 의지하여 겨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림요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400장 읽는 시편 풀 속에서

1. 읽는 시편 풀 속에서 나를 건져 주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2. 권세 능히 무한하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디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3.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침헌한 허배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후렴>

주여 나를 돌보소서 고이 무어 주시고
 험한 풍마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4장 1-4절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 광야로 가사
- 2 사십 일을 받으므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2021년 2월 첫째 주(2월21-27)

영적 설렘과 살림의 가정 예배



가정예배는 가능한 모든 가족원 함께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여 정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로 교회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자주 새로운 내용으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인도 : 딸 은 이

찬 송 400장 다 할 게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4장 1-4절 다 할 게
 말씀나눔 『시편을 읽는 습관』 다 할 게

인생을 일투라 이루 그리고 살후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슬프고, 삼는 것은 이르고 우는 것은 일류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다했던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일류고, 다른 사람 또는 무언가에 그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류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살림입니다. 일류와 이류 그리고 살림이 되는 것은, 날마다 습관을 지니고 공을 이루 어가고 있는 사람이 일류고, 의지와 공은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류고, 아무런 의지와 공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살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일류와 이류의 차이는 그저 알고 그리 대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지니면 일류 정도 되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 몸으로 볼 때 평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1-3절)" 예수님께서 해고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

서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우선 먹고살 것부터 찾아서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 돈이 있어야 사람이야말로 세상이라구"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기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직 문제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한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살림도 할 수 있고, 자녀들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4절)"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어 없었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슬만 먹고 신선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분명 필요하지만, 떡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속의 양치기만 먹고 사는 육적인 존재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고 살다가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만족하지 못함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버려진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넘어져서 절망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다 할 게
 월 중보회 기도회를 함께 인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 다 할 게

설명절 가정예배모범

인도 : 가족대표

사도신경 다 할 게
 신앙고백 다 할 게
 찬 송 찬송가 488장 다 할 게

1. 영혼이 온종일 영에 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다
2. 주의 얼굴 밝기 전에 물리 버린 하늘나라 내 땅속에 머무지나 날로로 거듭나다
3. 높은 신이 가진 줄이 조약이나 공물이나 주 예수 모신 곳 이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열렬무아 전양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 도 딸 은 이

인제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설명절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마태복음 12:28 다 할 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

셀 고 -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 딸 은 이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할 게

1. 시험에 볼바람 붙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줄거은 동산이라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시험에 놓쳐 있고 기쁨과 실음도 같이 하니 한 번의 간기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한 삼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줄거은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결핍한 사물을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잘 있는 단어가 가족(family)이라 생각합니다. 어 떤 사람들은 'family'의 어원을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형 공자를 따서 합성하여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파스한 단어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은 세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쁜 중 주시는 가정인도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만을 버려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교회는 두 다리의 장애를 극복하신 빌립을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때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봉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단에서 머물러 하라(행 16:15)"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눈과 보이는 것들처럼 유행적인 교회 안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을 예수님이 귀뎀고 늘 먼 환자를 고쳐 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8절)"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후한하신 한국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우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종전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 하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몰락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행 사에서 '이' 한국은 도래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 어서 천국이 아니라, 죽어 버리면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자멸을 피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 려서 버림 받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오묘기에 현재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피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중보회가 또한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믿는 자의 가정도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교회의 동일한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예배가 최선입니다. 교회의 예배보다 회복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확립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 G2People.com

연회에서는 자기 책임에게 힘을 주십시오
 연회에서는 자기 책임에게 평안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 시편 29:11

2021

Minero Presbyterian Church
 2021년 2월 첫째 주
 마태로교회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교회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 ‘가정 예배 순서’를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정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성경을 함께 읽도록 유도하였다. 그래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 성탄주일까지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 1탄 ‘100일 동안 성경일독’ 운동을 시작하였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백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계획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완독한 성도들에게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유일한 머그잔과 독서대를 시상품으로 걸었다. 각 목장 별로 휴대폰에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일 성경읽기 예보 문자를 보내며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출석 교인의 70% 이상이 일독을 했고, 지난 한 해 동안 9독을 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도 나왔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일동안 성경일독 Planner



- ※기간: 9월14일(월) ~ 12월22일(화) 100일 동안
- ※대상: 피레토 교회 전교인
- ※시상: 송구영신예배 시 시상합니다.
- ① 올해의 성경다독왕 (1-3등)
- ② 우리는 주의 백성 (모든 참여자)

*책갈피 성경을 읽어가서엔 끝들도 하나 씩 마음으로 이 행사의 일행대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14	창세기 1-12장	
2	9/15	창세기 13-24장	
3	9/16	창세기 25-36장	
4	9/17	창세기 37-46장	
5	9/18	창세기 49-50장	
6	9/19	출애굽기 1-10장	
7	9/20	출애굽기 11-20장	
8	9/21	출애굽기 21-30장	
9	9/22	출애굽기 31-40장	
10	9/23	레위기 1-10장	

이쪽 눈지 읽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11	9/24	레위기 11-20장	
12	9/25	레위기 21-27장, 민수기 1-3장	
13	9/26	민수기 4-13장	
14	9/27	민수기 14-23장	
15	9/28	민수기 24-33장	
16	9/29	민수기 34-36장, 신명기 1-7장	
17	9/30	신명기 8-17장	
18	10/1	신명기 18-27장	
19	10/2	신명기 28-34장, 예레미야 1-3장	
20	10/3	예레미야 4-14장	
21	10/4	예레미야 15-24장	
22	10/5	이사야 1-11장	
23	10/6	이사야 12-27장	
24	10/7	룻기, 사무엘상 1-7장	
25	10/8	사무엘상 8-10장	
26	10/9	사무엘상 11-31장	
27	10/10	사무엘하 1-12장	
28	10/11	사무엘하 13-20장	
29	10/12	사무엘하 21-24장, 열왕기상 1-6장	
30	10/13	열왕기상 7-14장	
31	10/14	열왕기상 15-22장	
32	10/15	열왕기하 1-9장	
33	10/16	열왕기하 10-18장	
34	10/17	열왕기하 19-25장, 역대상 1-2장	
35	10/18	역대상 3-12장	
36	10/19	역대상 13-26장	
37	10/20	역대상 27-29장, 역대하 1-9장	
38	10/21	역대하 10-23장	
39	10/22	역대하 24-34장	
40	10/23	역대하 35-36장, 에스라	

41	10/24	느헤미야	
42	10/25	에스더, 율기 1-6장	
43	10/26	율기 7-26장	
44	10/27	율기 27-42장	
45	10/28	시편 1-24장	
46	10/29	시편 25-44장	
47	10/30	시편 45-68장	
48	10/31	시편 69-87장	
49	11/1	시편 88-106장	
50	11/2	시편 107-118장	

별의 절반이 지냈습니다, 힘내세요-

51	11/3	시편 120-150장	
52	11/4	잠언 1-15장	
53	11/5	잠언 16-31장	
54	11/6	전도서 1-12장, 아가	
55	11/7	이사야 1-11장	
56	11/8	이사야 12-22장	
57	11/9	이사야 23-33장	
58	11/10	이사야 34-44장	
59	11/11	이사야 45-55장	
60	11/12	이사야 56-66장	
61	11/13	헤레미야 1-10장	
62	11/14	헤레미야 11-20장	
63	11/15	헤레미야 21-31장	
64	11/16	헤레미야 32-42장	
65	11/17	헤레미야 43-52장	
66	11/18	헤레미야에게, 에스겔 1-5장	
67	11/19	에스겔 6-16장	
68	11/20	에스겔 17-26장	
69	11/21	에스겔 27-37장	
70	11/22	에스겔 38-48장	

말씀의 맛이 달지 않았음-

71	11/23	다니엘	
72	11/24	호세아	
73	11/25	요엘, 아모스	
74	11/26	요바드, 요나, 미가	
75	11/27	나훔, 하박국, 스바냐	
76	11/28	학개, 스가랴 1-8장	
77	11/29	스가랴 9-14장, 말라기	
78	11/30	마태복음 1-11장	
79	12/1	마태복음 12-23장	
80	12/2	마태복음 24-28장, 마가복음 1-5장	
81	12/3	마가복음 6-16장	
82	12/4	누가복음 1-12장	
83	12/5	누가복음 13-24장	
84	12/6	요한복음 1-10장	
85	12/7	요한복음 11-21장	
86	12/8	사도행전 1-12장	
87	12/9	사도행전 13-24장	
88	12/10	사도행전 25-28장, 로마서 1-6장	
89	12/11	로마서 7-16장	
90	12/12	고린도전서 1-12장	
91	12/13	고린도전서 13-16장, 고린도후서 1-7장	
92	12/14	고린도후서 8-12장, 갈라디아서	
93	12/15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94	12/16	대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서	
95	12/17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1-2장	
96	12/18	히브리서 3-13장	
97	12/19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98	12/20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99	12/21	유다서, 요한계시록 1-10장	
100	12/22	요한계시록 11-22장	

() 목장 이름 _____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II- 100/100 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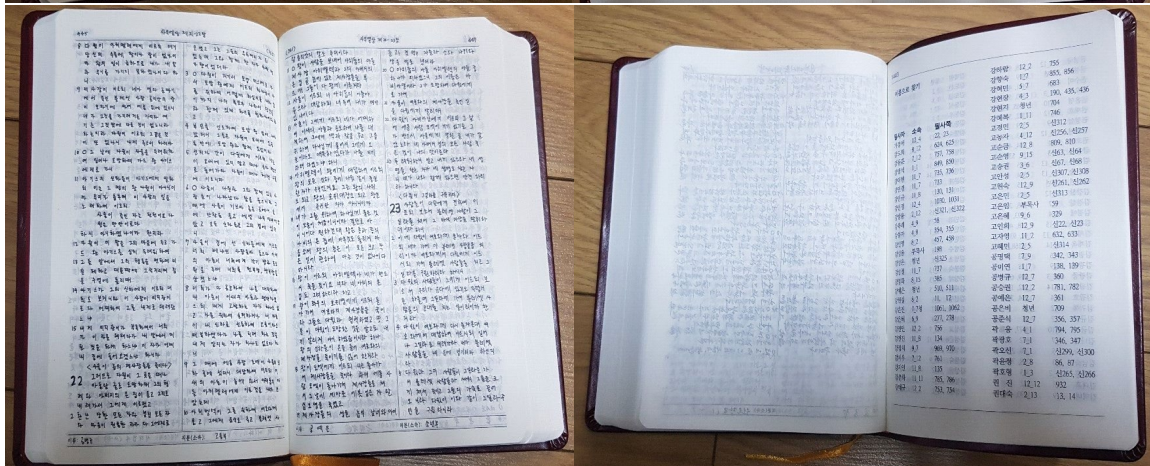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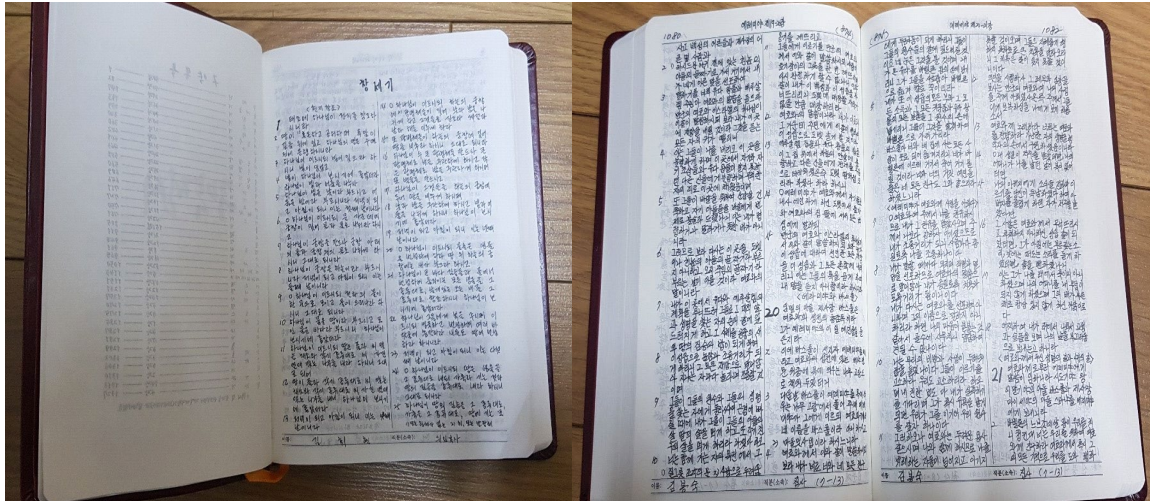
지난해에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 1에 백일 동안 성경일독의 성공은 새해를 맞아 교회 20주년 행사로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 2’ 로 ‘100명이 100일 동안 성경필사’ 를 시작하여 온 교회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는 재미가 솔솔 넘치는 분위기가 연출 되었다. 이는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며 또한 함께 이뤄냈다고 하는 연대감과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행사였다. 교회적으로 참 오랜만에 다 함께 누리는 자부심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100 성경필사 담당자표

100명이 100일 동안 성경필사

순서	이름	성경	순서	이름	성경	순서	이름	성경
1	김영태	창1장부터-24	36	김명애	529-539	71	김창대	1159-1169
2	이재학	25-35(34절까지)	37	남희순	540-564	72	김옥심	1170-1180
3	고회진	35(26장'이삭이 그할에 거주')-48	38	곽주형	565-575	73	조선희	1181-1193
4	김건환	49-59	39	성숙희	576-588	74	이인수	1194-1218
5	김기훈	60-72	40	박윤서	589-599	75	이미향	1218(41:20'다 그려하랴')-1243
6	변정환	73-96	41	이태복	600-613	76	안명선	1243(6:13'..기도하나다 하니)-1270
7	박민서	97-112	42	이희숙	614-638	77	국지연	1270(1:2'..어다 땅의 모든')-1296
8	오동환	113-120	43	유무열	638(18장부터)-651	78	최용국	1296(미가7장)-1308('예')까지
9	오행복	121-144	44	조성예	652-662	79	조현수	1308(3:10'물을 가지고')-1322
10	신영학	145-168	45	최은미	663-686	80	박금자A	1323-1331
11	김창현	169-179	46	김미경A	687-711	81	김경태	마1장부터-10
12	조재우	180-193(민17절까지)	47	윤선제	712-736	82	조윤수	11-23(14:4절까지)
13	김승건	193(18절부터)-203	48	조효숙	737-761	83	홍경석	23(14:5부터)-45
14	남기홍	204-216	49	곽희승	761-785	84	황영수	46-68
15	유대승	217-229	50	박현준	786-796	85	김인수	69-91
16	송해남	230-240	51	조승현	797-809	86	육순희	91(3:5'작은 산이')-114
17	정진호	241-250	52	곽진형	810-822	87	황경자	114(12:10)-124
18	김중식	251-264	53	오주현	823-833	88	조한나	125-137
19	이옥희	265-292	54	조용수	833(43:4 '금으로')-856	89	김근순	137(23:8'행하심을')-146
20	한수원	293-317	55	양해진	857-879	90	유종서	147-159
21	백연순	318-342	56	정남희	880-892	91	김진수	160-183
22	신미란	342(갈렙이 헤브론과..여15:13)-355	57	김진영	893-902	92	신은자	183(20:20)-207
23	정규성	356-367	58	김안선	903-926	93	조윤성	208-215
24	김광현	368-381	59	고은선	927-951	94	박지민	216-231
25	명현숙	382-392	60	주정란	951(4:2 '들보다')-976	95	황금숙	231(25:7'사건으로')-258
26	오승택	392(삿18:4)-403	61	이현희	977-1000	96	김명곤	258(14:6)-265
27	황규암	404-417	62	박은숙	1000(29:16 '에게 대하여')-1024	97	박지원	266-284(57절'말미암아')
28	오세훈	418-433	63	이규선	1024(45:21 '를 행하며')-1048	98	정은영	284(57절'우리의게')-294
29	김춘자B	434-441	64	임윤지	1048(66:5'이름으로 말미암아')-1058	99	김인수	295-311
30	박금자B	442-466	65	이태진	1059-1071	100	최선희	311(2:14)-339
31	신희균	467-480	66	권은하	1072-1096	101	황경숙	339(4:2'로')-367
32	손영심	481-490	67	김봉화	1096(29:4'서 예루살렘에서')-1120	102	김미경B	368(1:12)-397
33	김승혁	491-504	68	박월선	1121-1133	103	김양숙	397(1:8'일이 육체를')-423
34	이태분	505-515(3:22절까지)	69	김애란	1134-1145(2:16'우리가')까지			
35	홍세희	515(3:23부터)-528	70	안순임	1145(2:16'바라던 날이')-1158			

<그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100/100 성경필사본



영적 CPR 프로그램의 적용: EPIC 전도축제

왜 ‘EPIC전도축제’ 인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목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영로교회를 40년간 목회한 정필도 목사는 성장하는 교회 특징을 세 가지⁶⁴로 밝히면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 교회는 일종의 관계전도인데 12주 동안 진행하는 ‘사랑방 전도축제’ 라고 한다. 처음 4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자기 주변에서 찾아 걱정하는 기간이다. 둘째 4주 동안은 이 전도대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하고, 셋째 4동안은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 초청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런 긴 과정을 통해 교회로 들어 온 사람들의 정착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⁶⁵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주일예배만 드리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각종 집회로 가득하다. 주중 봉사활동과 공부 모임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빈 방이 없을 정도다. 정필도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고 했을 정도다. 종종 현대는 전도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본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다 믿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⁶⁴ 성장하는 교회 특징으로 1.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 2. 복음적인 교회이다. 3. 복음전파의 열정이 있다.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서울: 두란노, 2009), 207-12.

⁶⁵ Ibid., 212.

어떻게 ‘EPIC전도축제’ 를 준비해야 하는가?

EPIC전도축제일 정하면 두 달 전부터 즉 총 8주 동안 준비해야 한다. 먼저 한 달은 준비모임을 위해 면담과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영적 자원들을 집중하고, 전도 중심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각 기관의 책임자들과 만나고 직접 봉사자들과 물밑 작업을 통해 밑그림 그려야 한다.

EPIC전도축제의 8주전부터의 한 달 간의 준비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EPIC 전도축제 전 8-5주차 준비사항

	주일 준비 내용	평일 행사
축제 8주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PIC전도축제 전도 시스템 일정표 짜기 2. EPIC전도축제 토양 작업 3. 담임목사 기관별 면담 및 진행 (EPIC전도축제 협조 부탁) 4. EPIC전도축제 간증자 확보하기 5. 은혜의 문 수양회 계획 세움 	<p>‘EPIC전도축제’ 를 위한</p> <p>① 수요 말씀축제 ② 금요 기도축제</p> <p>8주 동안 진행함.</p>
축제 7주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PIC전도축제 토양 작업 2. 진영봉사자 선출 광고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일 수 있는 성도) 3. 교재, 버튼, 현수막, 포스터 준비 4. 예비신자 작성(1성도 3사람 이상 작성 홍보) 5. EPIC전도축제 간증 짜기 	
축제 6주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PIC전도축제 토양 작업 2. 진영봉사자 선출 광고 (기관별 선출과 담임목사 임명으로 구성함) 3. 담임목사 및 사모 버튼 달기 4. EPIC전도축제 현수막 설치 5. 구호 외치기 시작(수시로 외침) 6. 예비신자 작성(1성도 3사람 이상 작성 홍보) 7. EPIC전도축제 간증 짜기 	

축제 5주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영봉사자 선출 마무리 2. 5분 터치 준비(말김) 3. 구호 외치기(교육부서도 함께 실시) 4. EPIC전도축제 포스터 부착 5. 예비신자 작성 주일 광고 6. EPIC전도축제 소그룹 교재 준비 (다음 주일부터 진행) 7. EPIC전도축제 간증 짜기 	
-------------------	---	--

어떻게 ‘EPIC전도축제’ 를 진행하는가?

EPIC전도축제는 사실 축제 당일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영적 CPR를 통해 토양이 잘 준비된 교회의 영적 총 역량을 가동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온 교회가 무장하는 총 진군이기 때문에 과정에 기쁨이 있고, 진행하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이 만끽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이다.

EPIC전도축제 D-day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지난 4주 동안 교회 리더십들이 물밑 작업을 하여 조직한 봉사자들을 총 집합시키고, 수요일 말씀 축제와 금요일 기도 축제를 통해서 예열 된 그 열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행사를 위한 스텝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평신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사역이 시작된다.

준비 모임을 다른 요일이 아닌 목요일 저녁으로 정한 이유는 수요일에 말씀 축제를 통해 도전을 받고, 목요일은 실무적인 행사를 위해 토의하고 실무적인 일들을 점검하고, 금요일은 이런 사역이 영적으로 견고해 지도록 기도하자는 의미로 구성된 것이다. 목요일 1주차 준비 모임은 ‘진의 구축’ 을 목표로 하여 진행이 되고, 목요일 2주차 준비 모임은 ‘예비신자 작성과 기도의 진(陣)의 구축’ 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목요일 3주차 준비 모임은 ‘예비 신자와 만남의 진(陣)의 구축’ 을 목표로 운영이 이루어 지고, 목요일 4주차 준비 모임은 ‘마지막 영적 고비를 넘는 진

(陣)을 격려’ 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임을 갖는다.

<표6> EPIC 전도축제 1주차 목요모임

EPIC전도축제 1주차 준비모임

*목표: 진(陣)진의 구축

일시: 월 일(목) 저녁 ○시

1. 찬양(10분) 인도: 아이노스 찬양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2. 시작을 알리는 구호 제창 담임목사
 (팀별로 일어서/ 팀별 대항)
 EPIC! (다 함께) 전도축제!
 한 영혼! (다 함께) 걱정하고!
 열 번! (다 함께) 만나고!
 백 번! (다 함께) 연락하고!
 천 번! (다 함께) 기도하자!
3. 진(陣)의 구축 담임목사
 - 1) 위원장 선출: 전체적인 사안을 진행하는 책임자
 - 2) 총 무 선출: 연락 및 진행사항 지휘
 - 3) 서 기 선출: 회의 및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존하기
4. 통성기도 축제위원장 ○○○ 장로
 기도제목: ‘EPIC전도축제 승리하게 하소서’
 마무리기도: 담임목사
5. EPIC전도축제 봉사자 출석 확인..... 총무: ○○○ 장로
6. 전도 간증 ○○○ 권사
7. 메시지 담임목사

‘믿는 자의 축복을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자 ‘EPIC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갈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전도방법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쉽게도 요란한 소리만큼이나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 성도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가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불신자 전도에 기폭제가 되고 교회 영적 성장의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EPIC 교회로 가는 길에 시작하는 것이 ‘EPIC전도축제’입니다.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강력하게 힘을 얻게 됩니다.

‘EPIC전도축제’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전체 성도의 80% 가까이를 전도에 동참하도록 교회 구조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역을 위하여 EPIC전도축제 스텝을 구성하고자 오늘 이렇게 축복된 첫 모임과 함께 앞으로 4주간의 행복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EPIC전도축제 스텝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자세로 무장하여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의 소리에도 마음 주지 말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이미 영적고지를 점령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일에 스텝들은 특공대로 보냄을 받은 영적 용사입니다. 스텝은 사단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불신자의 영들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어두움의 결박을 풀어 빛으로 해방시키는 영적 특공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전쟁, 모든 승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축복된 사역에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멋진 출발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EPIC’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8. 진의 조직화 축제위원장 ○○○ 장로

- 1) 기도진(陣): 기도방법 세우기, 기도전략 세우기, 기도운동 일으키기
- 2) 홍보진(陣): 홍보물 제작, 행사진행 계획, 환경미화

9. 전도 목표 세우기..... 축제위원장 ○○○ 장로

※ 당일 예배 참석자와 결신자(영적으로 결정)

10. 작전구호 외치기 축제위원장 ○○○ 장로

작전 구호 3회 외침

11. 오는 주일 ‘예비신자 걱정’ 상황체크 총무: ○○○ 장로

1) EPIC전도축제 5분 터치:

* 예비신자 걱정주일에 ‘홍보진’ 이 연극을 준비하여 주일예배 시 공연

2) 진영별 한 주간 금식기도: * 날짜 정하기: 월요일~주일

3) 금주의 진행 사항, 금주의 기도 내용 안내판 만들어 설치

4) 전교인 예비신자 걱정(1,10,100,1000 운동)

5) 주일예배 시간에 EPIC전도축제 영상 보기

6) EPIC전도축제 기도제목 및 예비신자 명단표를 준비하여 중보기도실에 비치

7) EPIC전도축제 매일 말씀 1장 읽기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함:

* EPIC전도축제 말씀읽기 진행표 참조

12. 광고 총무: ○○○ 장로

1)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영별 금식기도를 실시한다.

*기도진은 1일 금식표 짜기

2) 다음주 EPIC전도축제 진행위원 모임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입니다.

* “내가 결석하면 한 영혼을 못 살린다.”

13. 각 진영별 모임: 진영별 임원 선출

※ 각 분과는 회의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한다.

<표7> EPIC 전도축제 2주차 목요모임

EPIC전도축제 2주차 준비모임

*목표: 예비신자 걱정과 기도의 진(陣)의 구축

일시: 월 일(목) 저녁 ○시

1. 찬양(10분) 인도: 아이노스 찬양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2. 시작을 알리는 구호 제창 축제위원장

(팀별로 일어서/ 팀별 대항)
 EPIC! (다함께) 전도축제!
 한 영혼! (다함께) 걱정하고!
 열 번! (다함께) 만나고!
 백 번! (다함께) 연락하고!
 천 번! (다함께) 기도하자!

4. 통성기도 축제위원장

*마무리기도: 총무

6. 메시지 담임목사

‘말씀대로 움직이면 승리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 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5~6) EPIC전도축제 전략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전도전략입니다. 가나안 땅 첫 성읍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강한 요새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두고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PIC전도축제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리고 성읍’과 같이 견고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강력한 요새의 진을 구축하고 절대로 불신자들을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EPIC의 영성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중무장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매일 순종하여 여호와와 말씀대로 움직였듯이 EPIC전도축제 전략으로 매일, 매일 난공불락과 같은 불신앙의 심령들을 예수 복음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EPIC전도축제 영성은 ‘절대 순종’입니다. EPIC전도축제 진행위원 여러분! 여호와와 말씀대로 매일, 매일 순종하며, 이 일에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됩시다. 진행위원들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불신자를 예배신자로, 예비신자를 새신자로’의 영적 목표에 인생을 투자합시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EPIC전도축제 진영의 심장이 날마다 강력하고 힘 있게 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된 사역에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6. EPIC전도축제 예배 참석자 및 등록 결신자

7. 진영별 출석확인 담임목사

1) 기도진:

000, 000, 000, 000, 000.....

2) 홍보진:

000, 000, 000, 000, 000.....

8. 예비신자 작성 현황 및 예비신자 늘리기 논의 축제위원장

“현재까지 ()명의 성도가 ()명의 예비신자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비신자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9. ‘EPIC전도축제 홍보’ 상황 및 계획 발표 홍보팀장: ○○○ 집사

1) 접촉점 만들기 (선물 주기 만남)

* 예비신자를 찾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2) 이번 주일은 2차 예비신자 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지난 주일에 작성하지 못한 성도의 추가 작정을 유도한다.

3) 등록신자의 효과적인 교회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팀’ 운영한다.

4) 전교인 예비신자 작성 현황 보고 주보 속지 만들기

* 전교인을 직분 순으로 예비신자 작성 현황기록

5) 2차 예비신자 작정을 돕기 위한 ‘EPIC전도축제 10분 터치’ 역할극

* 주일 낮 예배 시 발표.

6) 진영별 선물 배부 역할 분담

* 전도회 별로 3~5명이 조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비신자 관리에 들어간다.

* 선물을 작성자에게 분배한 후 예비신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비신자 늘리기 독려한다.

7) 주중 EPIC전도축제 전용 벽 홍보 게시판 만들기.

8) EPIC전도축제 영상팀 운영

* EPIC전도축제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 전도 영상물 상영 및 ‘EPIC뉴스’ 제작.

9) EPIC전도축제 구호 및 주제 찬양 율동 대회

*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진행함. (2주 후 오후예배)

* 행사진행 담당자를 선정하여 홍보에서 사회까지 준비토록 한다.

10. ‘EPIC전도축제 기도’ 상황 및 계획 발표 기도팀장: ○○○ 집사

1) 매일 오전 11시 / 저녁8시 / 저녁9시

* 전체 목장이 동참하여 이 중에 한 시간을 선택

* 기도는 월~주일까지 매일 실시해야 한다.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 기도분과는 각 목장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짠다.

2) ‘기도제목’ 을 잘 정리하여 미리 비치한다.

* 기도 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예비신자 명단이다.

3) 기도 출석 확인표를 만들어 사용한다.

4) 기도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기도 예보 시스템’ 을 사용한다.

* 문자 혹은 전화

5)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벽보 만들기

* 주일 오후예배시간 오픈 행사

11. 각 진영 별 모임

* 각 진영은 회의를 마치고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표8> EPIC전도축제 3주차 목요모임

EPIC전도축제 3주차 준비모임

*목표: 예비신자와 만남의 진(陣)의 구축

일시: 월 일(목) 저녁 ○시

1. 찬양(10분) 인도: 아이노스 찬양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2. 시작을 알리는 구호 제창 축제위원장

(팀별로 일어서/ 팀별 대항)

EPIC! (다함께) 전도축제!

한 영혼! (다함께) 작정하고!

열 번! (다함께) 만나고!
 백 번! (다함께) 연락하고!
 천 번! (다함께) 기도하자!

4. 통성기도 축제위원장
 *마무리 기도: 서기

5. 메시지 담임목사

‘십자가 영성으로 길을 열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4~6)

EPIC전도축제 진영은 앞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진행위원이 전도의 길을 내면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뚫고 나가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EPIC전도축제 각 진영이 어떠한 길을 열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작고 초라한 길을 만들면 성도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만들어두면 두려움과 위험의 길을 성도들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만드는 것이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만 이 길을 가야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튼튼하고 안전하며 온 성도가 함께 갈 수 있는 반석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EPIC전도축제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탁월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진영별 사역자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2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으로 멋지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6. EPIC전도축제 예배 참석자 및 등록 결신자

7. 진영별 출석확인 담임목사

1) 기도진:
 000, 000, 000, 000, 000.....

- 2) 홍보진:
000, 000, 000, 000, 000.....
8. 예비신자 작정보고 축제위원장
“현재까지 ()명의 성도가 ()명의 예비신자를 작정했습니다.”
9. 각 진영별 지난 주 사역보고 홍보진 대장
기도진 대장
10. 이번 주 ‘EPIC전도축제’ 계획 총무: ○○○ 장로
- 1) 2차 선물 주기 실시
 - * 선물은 예비신자 명단 제출자만 줌
 - * 예비신자 추가확보 기회
 - 2) 예비신자 선물 전달 진행 확인표 작성
 - 3) 등록신자의 효과적인 교회 정착을 위한 기존의 ‘새가족부’와 ‘바나바 사역팀’을 교육하고 재정비 한다.
 - 4) EPIC전도축제 이벤트 ‘누가 전도왕이 될까?’
 - * 작성 용지 준비 및 홍보
 - 5) 2차 예비신자 작정을 돕기 위한 ‘EPIC전도축제 10분 터치’ 역할극
 - * 주일 낮 예배 시 발표.
 - 6) 깜짝 발표 - EPIC전도축제 전도왕에게 다음과 같은 시상을 합니다.
 - * 10명 이상 전도자:
 - * 5명 이상 전도자:
 - * 2명 이상 전도자:
 - * 1명 이상 전도자:
 - 7) 현수막 준비
 - * 예비신자 명단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 8) 주일 낮 예배 시 ‘5분 간증자’ 선발 및 간증 원고를 준비하게 함.
 - * 신앙생활한지 1년 이내의 새가족을 간증자로 세워야 함.
 - 9) 이번 주간 기도전략: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시작함
 - * 금식기도 신청자들의 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나눠 줌
 - * 기도진영은 기도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도 담당자들에게 알려줌.
 - * 기도확인표를 만들어 기도 실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철저히 함.
 - * 기도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신자 명단 및

기도제목을 만들어 비치함.

10) EPIC전도축제 초청장을 제작하고 배부함.

11. 각 진영 별 모임

* 각 진영은 회의를 마치고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표92> EPIC 전도축제 4주차 목요모임

EPIC전도축제 4주차 준비모임

*목표: 마지막 영적 고비를 넘는 진(陣)을 격려

일시: 월 일(목) 저녁 ○시

1. 찬양(10분) 인도: 아이노스 찬양팀
 ‘나의 영혼 싸울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2. 시작을 알리는 구호 제창 축제위원장
 (팀별로 일어서/ 팀별 대항)
 EPIC! (다함께) 전도축제!
 한 영혼! (다함께) 작정하고!
 열 번! (다함께) 만나고!
 백 번! (다함께) 연락하고!
 천 번! (다함께) 기도하자!

4. 통성기도 축제위원장
 *마무리기도: 기도진 대장

5. 메시지 담임목사

‘살아있는 자로 드러나자!’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9:4)

EPIC전도축제 진영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없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EPIC전도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하며, 이 큰

10. 이번주 ‘EPIC전도축제’ 계획 총무: ○○○ 장로

- 1) EPIC전도축제 등록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나바팀’ 운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운영 상태를 보고한다.
- 2) 금주 섬김 전략은 각자가 예비신자에게 감동적인 선물주기이다.
* 식사대접하기 혹은 선물 주기
- 3) EPIC전도축제 당일 예비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초청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초청을 독려함.
- 4) EPIC전도축제 당일 행사 준비:
* 예배, 안내, 선물, 등록, 식사, 주차, 환경미화 등 모든 것을 조직화 함.
- 5) EPIC전도축제 초청장 배포함.
- 6) 장기 결석자 전략
* 담임목사님 이름으로 초청편지 및 전화하기
“EPIC전도축제날 꼭 오셔서 뵙기를 원합니다.”
- 7) EPIC전도축제 당일 사용할 교회홍보영상 제작 마무리 확인해야 함.
- 8) 현수막 설치: 환영 현수막 및 계단 홍보 변경
- 9) 간증자를 선발해서 주일예배시간에 함.
*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5분 간증
- 10) 기도사역: 금주는 전교인 24시간 교회 릴레이기도 진행한다.
* 마지막 한 주간은 기도에 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
* 기도예보시스템을 성실하게 작동해야 한다.
* 결원이 생기면 즉각 보충한다.
* 한 시간에 여러 명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 11)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실시
- 12) EPIC전도축제 대청소 실시

11. 각 진영 별 모임

- * 각 진영은 회의를 마치고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미래로교회 교인들의 평가

영적 ‘CPR’ 을 통해 교회 재정향을 공유한 은퇴 장로의 고백문

우리는 교회 헌법과 말씀에서 어긋난 교회에서 탈퇴하여(2001.3.11.) 미래로 교회를 설립하였고, 2003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가입하여 목사 1인, 장로 2인, 세례교인 300인의 조직 교회로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재산 문제로 재판에 패소함으로써 당시의 예배 처소를 빼앗기게 되었다. 여기저기 예배 처소를 구하던 중에 노회로부터 개척자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교회를 세우기를 제안 받았다. 노회로부터 개척자금 6억 원을 지원 받는 조건은 교회의 예배장소는 반드시 광명시 소하동이어야 하며, 전혀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로 반석교회 교인이 이 새로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성도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서울의 구로동 지역인데 광명시 소하동으로 이사한다는 말에 교회는 다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나 교인 전체의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 30여명이 당시 교회의 부목사를 중심으로 광명시로 가는 것을 반대하여 탈퇴하였다. 그런 분열의 아픔을 또 한 차례 경험한 후 현재의 장소(광명시 소하동 81 한빛B 8층)를 매입하여 설립예배(2011.6.20.)를 드렸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노회는 성도들의 교회 직분을 회복시켜주었고 조직 교회로서 지금에 이르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래로교회 당회는 불의에 항거하여 기존 교회를 탈퇴한 날을 택하여 창립기념일로 정하고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래로교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성년이 된 교회로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적는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나에

게 두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일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교회 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훗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말씀에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중략)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복하여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였고 계속 기도한다. 역사는 지난 후에야 만들어 지듯이 지금 우리는 주의 은혜 중에 있으나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나 주님은 보고 계시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는 것도 구하여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영생은 주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은사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전하고 가르친 자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성경을 아는 것인지,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인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선배들은 때로는 20일, 30일,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가르친 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진정 성경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성경에서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일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혹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미래로교회는 20세 성년이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미숙함으로 많은 실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린다. 미래로교회 20주년 성년 됨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2021년 교회설립일 아침. ○○○ 은퇴장로

‘수요 바이블 세미나’ 를 참여한 40대 여성 집사

확실히 기존의 성경공부와는 다른 과정입니다. 참 벽차고 신기했습니다.

‘수요 바이블 세미나’ 는 엄청 마음에 췌림이 있고 계속 뭔가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나를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는데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한 점 걱정 없고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그 때에 내가 얼마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무얼 하면서 살았는지 자존감은 없어지고 세상 눈치만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못하는 것만 들춰지고, 그런 것들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고 시인하고, 점점

늘어져서 못 생겨지고 뚱뚱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겠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맨날 눈물 흘리며 감사하지만 정작 나는 없어지고 내 위치만 많아지는 중압감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이 말씀이 맘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나의 모든 믿음생활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세미나가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잘 참다 가도 누군가 한 명이 터지면 서로 휴지 챙겨주며 울고 불고... 하루도 안 울고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수요 바이블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나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감도 못 잡았던 Q.T. 라는 거 처음 해보았지만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건 맘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얘기를 꺼내도 함께 나누면 이상하게도 홀가분해지고, 해결 되어 지고, 서로 기도제목만 나눠도 금세 응답이 되는 신기한 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과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의 나이가 제 각각인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유태경 목사님이라 더 좋았네요. 한 목사님과 이렇게 성경을 매개로 오랜 시간을 매주 만난 적이 전무후무이기 때문에 목사님 댁에 가서 공부한 것도, 입원하셔서 병문안 간 것도,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나들이 간 것도, 한 목회자의 삶을 친근하게 듣는 것도, 무엇보다도 깊고 깊은 하나님 얘기를 진솔하게 듣는 것도, 내 인생에서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함

니다.

‘중보기도학교’ 를 마친 50대 여성 권사

청년부 때부터 교회에서 양육 받고 자라고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결혼과 동시에 육아로 인해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아이 양육이라는 핑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서 점점 그분이 내 삶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 관계만 중요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9월, 교만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 검진을 한 결과 암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와 영적인 상태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보기도의 필요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자라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들을 기르게 되어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중보적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 가족들과 함께 성경통독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대원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중에 있는 양육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섬기며, 시간의 십일조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하고자 합니다.

백일동안 성경일독을 마친 50대 남성 안수집사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새로 부임하신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1000.100.10의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 읽기 카드를 나눠주며 온 교회가 새 마음 새 다짐으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으나 정작 나는 어떠한 꿈도 비전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였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던 심령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새해 첫 주부터 시험이 찾아왔다. 차들로 가득한 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없는데, 정지선에 있는 내 차를 뒤에서 팡! 하고 들이 받는 추돌사고가 난 것이다. 이어 사고가 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 오는 길에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또 한 번 큰 사고가 나고야 말았다. 순간 뒷좌석에 있는 가족들을 살렸는데 다행히 모두 안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사고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왜 하나님께서 연이은 사고로 나를 또 병원에 누이셨을까?’ 지난 27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재활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던 터라 항상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아파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했지만 과거에 수술했던 곳은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연이은 사고는 나에게 무언가 암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싸인이구나!’ 그제야 직장일로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하루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올해는 꼭 성경일독 합시다.’ 라고 광고하는데, 후보를

보니까 벌써 3독, 4독을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읽기로 다짐하고 성경을 펴고 매일 읽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이 깨달아 졌다.

‘나로 인해 가족들이 그 동안 얼마나 힘 들었을까?’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잘 자라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우울증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하나님은 35년 동안 직장을 다니도록 한결같이 지켜 주셨는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실직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마6: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11:24).

지난 2014년 불경기로 많은 회사들이 폐업하고 동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 주셨는데, 난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고 다시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퇴원 후에 몸을 회복해 가면서 드디어 성경을 일독을 마쳤을 때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지내왔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축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되어 눈물이 앞을 가린다.

‘EPIC 전도축제’ 스텝으로 봉사하신 40대 남성 집사

지금껏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금요불꽃기도회에 참석하여 찬양 중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차근차근 깊숙이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든 무엇이든 시키면 네네 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웃으면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 고등부 교사로 섬긴 지 5년째입니다. 부끄럽지만 그저 그냥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맡았고 그저 영혼 없이 불러 모으고, 간식을 먹이고, 재미있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교사들은 영혼구원을 열정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에 어찌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귀한 어린 영혼들을 방치했구나 하는 강한 찢림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EPIC전도축제 때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원 상담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낯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메시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전도학교에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뜨거운 찬양과 전도 간증,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조별로 전도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 조장님은 무슨 자동판매기같이 입에서 술술 거침없이 유창하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주눅이 들었고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EPIC전도축제 날씨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마음은 타 들어 가는데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오로지 기도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 담대히 증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전도대상자는 16살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맘이 짠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그 학생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단 한 번도 “선물 줄 테니까 선생님하고 얘기 할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과거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원색적인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목장 모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EPIC전도축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영혼의 열정을 가지신 분은 스텝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V 장

결 론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교회의 재정향(Reorientation)을 통해 전도 복음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장에서 목회하는 연구자의 깊은 기도와 학문의 갈급함의 결과물이다. 이제 담임목회를 시작한 교회는 한국교회가 성장가도를 힘차게 달릴 때 개척하여 급성장하였었다. 그러다가 교회 내의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급기야는 재산권으로 소송 끝에 패소하였다. 원치 않게 기존의 예배처소에서 약 한 시간가량 거리가 떨어진 곳에 예배 처소를 정하게 된 교회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이 가득한 본 연구자는 교회의 회복이란 교회 본질로의 돌아감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성서가 제시해주고 있는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2천 년 전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한 그 교회는 현대사회에 어울려 사는 현대인들을 아우르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으로 옷으로 입어야 하는 두 가지 방향을 견지하려는 것이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의 목적이고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교회의 재정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인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교회의 본질이 태생부터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교적 교회와 거리가 있는 모든 활동의 부작용

용임을 간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회 재정향을 위해 성서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범적인 교회를 옮겨올 수도 없고, 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일컫던 원산의 대 부흥운동이나 평양의 대 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대현교회를 재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셨던 그 위임을 기억에 상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피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셨던 그 교회를 머리 속에 떠올려야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 양심의 열정과 이 땅에서 타올랐던 성령의 불꽃을 환기하면서 교회의 온전한 재부팅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의 재정향은 바로 선교적 교회였던 것이다. 복음전도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도, 삶 속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부터 일어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란 일반 사회와 세상 문화 속에서 예전을 집행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친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면밀한 주도 아래 진행되는 거대한 인류 구원의 비전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감행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회가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그의 본질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는데 본 연구자의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다. 17세기부터 일어난 세계선교 운동은 유럽 국가들의 산업화로 팽창하였던 제국주의와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예수님이 증거 하셨던 말씀과 그 분이 친히 사셨던 실천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질문명의 힘을 앞세워 문화적 정복 차원의 교세 확장의 방식으로 성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가가 아니다. 선교가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본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가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기능 중 하나로 보는 상황에서는 본질을 구현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교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며 교회의 리더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다시금 현대사회의 거센 도전에 교회는 위기를 탈출하는 비상구가 선교적 교회에서 찾았음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의 강조는 교회의 본질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여 성도 개개인이 자신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인간 조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현실에 맞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자기를 반성하며 본연의 모습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교회가 먼저 창조 세계와 화해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와 화해하고, 가정과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조직체로 아직도 죄 된 모습을 가진 현실적인 교회와 거룩하며 신적인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이상적 교회의 간극이 좁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있으며 동시에 둘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교적 재발견 교회야 말로 현대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력이 약해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위해 이천 년 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같이 또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한국교회에 오순절의 사건과 같은 부흥이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

다. 이것이 바로 영적 CPR의 이유이다.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이 영적 CPR이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닌 방향성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영적 CPR의 첫째는 Congregation(모임)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모임이다. 모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모임은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이 공동체성은 성 삼위하나님의 연합의 성품과 결이 같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모임에 있다. 모임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는 회생할 수 없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모임에 속하게 된다. 이런 모임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안정감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다른 사람을 알아가며,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사람답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 모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모임들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모이거나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이며, 혹 어떤 모임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사람이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교회의 모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 모임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성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교회는 Prayer(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기도를 통해 초대 교회는 탄생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이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 뜨거운 기도로 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기도는 과거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과거

에는 교회는 물론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런 기도의 분위기는 한국교회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기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표현이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왔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육성해 왔다. 기도가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작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뉴 노멀 비대면 시대에도 영성의 쇠퇴기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셨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영적 CPR의 마지막은 ‘Reading the Bible(성경읽기)’이다. 교회가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 무너진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복이 있다(계 1:3)고 하셨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너무 흔해서 너무 많아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도들은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기를 귀찮아 하고 있다. 말씀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적 CPR을 통해 희생한 교회는 현대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진리는 단조로우나 매력도 뽐내야 한다. 그것이 EPIC 이론으로 무장한 EPIC 교회이다. 이 EPIC 교회는 첫 번째 요소가 체험하는(Experience) 교회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세상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이면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런 만남을 통해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변화된다. 들어서 아는 것이나 배워서 아는 것은 그다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음을 알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하도록 깨어 준비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또한 개인의 삶도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공유하게 된다.

EPIC 교회는 두 번째 요소가 참여(Participation)하는 교회인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갈수록 직접적인 참여를 선호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과거에 남의 경험을 수동적으로 구경하고 대리적 경험으로 만족했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기에 교회는 참여의 길을 만들어 주고, 참여의 과정을 공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회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처사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스스로 성육신을 통해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참여의 모델이 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리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셔서 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은 사람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그 가치를 보존하며 발전되어 가야한다. 참여는 인간의 요구이면서 먼저 하나님의 요구이시다. EPIC 교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EPIC 교회는 이미지(Images)를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좋은 디자

인은 구매력을 끌어올린다. 제품의 견고성이나 질만큼이나 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조악한 이미지는 제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어 졌어도 팔리지 않는다. 성서는 이미지로 채워져 있지 명제와 공식으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미지와 은유와 내러티브와 상징과 노래와 시로 충만한 성서의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상징과 은유와 내러티브가 흘러 넘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담아내야 한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고유한 매력을 충분히 갖고 싶고 찾아가고 싶도록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소홀하면 그 교회가 과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EPIC 교회는 관계(Connection)를 맺는 교회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관계를 위한 장소로서 과거보다 기능이 축소되었다. 교회가 그 지역의 모임의 장소로 회의를 하여 어떤 결의를 하는 곳으로 마을 언덕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접근이 용이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세상의 다른 데에 다 빼앗겼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곳, 지역사회의 축제의 장소였음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곳으로 문턱을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EPIC 이론으로 매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EPIC전도축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

연구의 결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초대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선교로 그 생명을 번식하였다. 그 지경을 넓혀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로마와 세계 끝을 향해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교회 고유의 본질을 망각하고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탐험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비바람과 태풍이 아니다. 제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탐험가의 모험심을 흥분시킬 뿐이다. 그런데 탐험가의 신발 안에 작은 자갈이 결국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일 것이다. 현대와 같은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재정향 된 EPIC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소속감의 결핍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문제를 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제아무리 편리한 과학문명의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적 시설을 제공하는 대도시라고 하지만 엄청난 군중 속에서 인류는 공허감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고립과 관계의 빈곤으로 허덕이는 것이 현대인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인 머지않은 과거만 해도 소속감을 가지고 그 단체나 집단 또는 공동체의 테두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개인마다 자유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소속감보다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하여 더욱 고독감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유해무는 벌써 20여 년 전에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교회 안에 공동체성에 대한 갈망이 이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세대의 시골 교회들은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고 소수였지만 교인들이 서로 신앙 안에서 의존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렸다. 공동체성에 대한 위기감은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도시화와 교회의 대형화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오히려 도시화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데 가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의 신앙의 무기력이라는 질병을 가져다 줄 것이다.⁶⁶

유해무는 이미 시절에 유럽과 북미 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곡선을 지켜보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한국 교회의 위기를 예견한 것 같다. 오늘날 유럽의 대도시에서 고색창연한 거대한 교회당은 예배 처소가 아니라 인기 높은 관광지로 그 역할을 변화시켜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 교인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멋진 건물은 재정향도 EPIC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재정향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를 뒤따를 것이다. 인간의 개인주의와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고립이 가져다 줄 재앙을 염두하고 교회의 재정향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위와 아래의 수직으로의 연결과 좌와 우의 수평의 연결이 교차하며 이루는 역동을 위해 디자인 된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EPIC 교회로 가야한다.

영적 CPR로 영적 호흡을 시작하여 회복의 기운을 차린 교회는 과거의 단조로웠던 옷을 다시 주워 입지 말고 EPIC이라는 다양한 질감으로 직조된 교회론의 옷을 입고 선교적 교회로 재정향 되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이 선교적 교회로 재정향된 교회는 EPIC의 옷을 입고 EPIC전도축제로 생명을 건져내는 고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로교회에서 진행하는 ‘EPIC전도축제’는 전혀 새로운 전도프로그램이

⁶⁶ 유해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4월호(1999), 96.

아니다. 한국교회에 진행되는 다양한 전도프로그램 중의 하나일 뿐이거나 내용면에서는 그것이 타 프로그램과 견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전도를 위한 방법으로서 EPIC전도축제를 프로그램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본 연구자는 상처와 오랜 시간 무기력에 빠져있던 교회가 침체와 영적 패배감에서 극복하기 위해 목회 전략에 따라 다양한 모임(Congregation)을 계발하여 공동체 역동(Group Dynamic)을 극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프로그램이 아닌 목회 전략적 시스템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생명력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해가 된다. 성서의 가르침과 같이 ‘죽은 사자보다 살아 있는 개’가 나올 것이다. 교회를 사람들로 채우려는 지도자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Experience)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Experience)하고, 혼탁한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진수를 먹고 마시는 말씀의 맛을 체험(Experience)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향의 목표이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동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다음세대를 일으키고, 지역사회를 살 맛나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Diakonia(섬김) 사역을 감당하는 적극적 참여자들의 참여가 뒤따를 것이다. 참여(Participation)를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여를 위해 대기하는 봉사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참여자들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이런 모습이 EPIC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인 참여(Participation)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깊이를 제공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렇다면 오래되고 낡은 복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주는 매력적

인 교회, 매력적인 복음, 기독교 문화의 이미지/Images)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좋은 이미지는 교회와 세상을 복음과 상황을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잇는 상호관계적인 교회 즉 관계(Connection)를 맺는 교회가 된다.

이런 EPIC의 요소를 총동원하여 프로그램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EPIC 전도축제’는 만들어졌다. ‘EPIC 전도축제’는 그간 교회에서 왜 모임을 가져왔는지,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를, 왜 성경통독을 열심히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고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여 세상과 다리를 놓는 전도지향적인 교회 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갈 구 있다. 지금은 ‘EPIC전도축제’가 완성된 성격이라 결코 말할 수 없다. 교회가 성숙해져 갈수록 ‘EPIC전도축제’는 더 완성되어 갈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 즉 EPIC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목회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다. 교회 안에서 소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평신도들이 교회를 두고 가지고 있는 각각 요구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좀 더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의 EPIC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절실한 지식과 지혜의 나눔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학적, 선교사적, 교회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더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자는 기성 교회에 부임하였다. 교인들 중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여 80~90년대의 은사 목회의 향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 반면 21세기 비대면 시대의 뉴 노멀 비 접촉의 환경을 추구하는 성도들도 있다. 목사로서 교회 문화를 구세대와 요즘세대들과의 중간에서 어떻게 정립해야 할 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하므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목회자들과의 연대는 지속적인 EPIC 교회를 세

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이는 또 다른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교회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뒤처지고, 그렇다고 시대를 역행하며 생명력을 과시 하지도 못하는 점점 적실성을 잃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 연구를 시작할 무렵 때로는 교회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깊은 냉소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이다. 깨지고 사라질 것처럼 박해가 찾아와도 일어나서 선교의 길을 뚫었고, 제 아무리 강력한 세상 문화와 권력 그리고 질병과 재해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온 것이다. 새내기 목회자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품고 몸부림쳐보면 왜 그토록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인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답이 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목회현장에서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선교재발견적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연대의 가능성을 여는 연구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외국어 서적

Leonard Sweet, *Soul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MI: Zondervan. Kindle Edition, 2009.

Leonard Sweet, *VIRAL, Colorado Springs*: WaterBrook Press, 2012. Zondervan. Kindle Edition, 2009.

번역서적

Andy Crouch, *컬처 메이킹*. 박지은 역. 서울: Ivp, 2009.

Aubrey Malphurs, *교회 부흥전략*. 성종국 역.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7.

Bill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8.

C.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Cha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최석원 역. 서울: 청우, 2010.

Leonard Sweet, *영성과 감상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Rodney Stark,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Timothy Keller, *인생질문*.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9.

Warren W. Wiersbe,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한국어 서적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경기도: 비아토르, 2017.

강준민. *관계의 법칙*. 서울: 두란노 서원, 2005.

김창식. *선교적 교회의 청년 목회*. 서울: 콤파출판사, 2015.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안명숙. *재난 시대를 극복하는 한국교회*. 서울: 킹덤박스, 2020.

양병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7.

이동원. *증보기도 사역론*. 서울: 나침반, 2011.

이재철. *회복의 목회*. 서울: 흥성사, 1999.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서울: 두란노, 2009.

조해룡.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상*. 서울: 도서출판소망, 2013.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최대복.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서울: 규장, 2007.

논문, 잡지

권승혁. “기도의 본질인 증보기도에 대해.” 크리스찬투데이. 2012.03.16.

김교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선교적성찰.” *장신논단 V*. 52(2020), 196-200.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2) 과거에서 찾는 교회의 미래.” 국민일보

2012.09.10.

김우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오픈소스와 참여의 힘.” ZDNET KOREA 2016.6.30,

박재관.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목회학박사논문, 드류 대학교, 2018.

유해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4월호(1999), 98-99.

전병욱. “목회자가 영권을 잃으면 재앙이다.” *목회와 신학* 6월호(1996), 108.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GOCN의 연구를 중심으로.”

1910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6(2011), 59.

정훈택. “예수님이 요청하신 교회 이미지.” *목회와 신학* 10월호(1997), 51.

조병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05.01.

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

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Amp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Taekyoung You

Place and Date of Birth: Naju, South Korea, July 25, 1972

Parent`s Names: Gapjong Yu and Yoonji L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hoong Ang High School 164, Changdeokgu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24, 1990
Collegiate: Seoul Digital University 424, Gonghang-daero,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22, 2014
Graduate: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726-15, Waemok-ro, Sanggwon-myeon, Wanju_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M.div	Feb27, 201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Taekyoung You

Name typed

February 23. 2021

Date